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변 기 용 교수지도
석 사 학 위 논 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경험에 대한 연구
: A대학 사례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고등교육 전공

강 미 리

2018년 12월

강미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심사를 완료함.

2018년 12월 7일

위 원 장 변 기 용 인

위 원 신 현 석 인

위 원 오 영 재 인



목 차

국문 요약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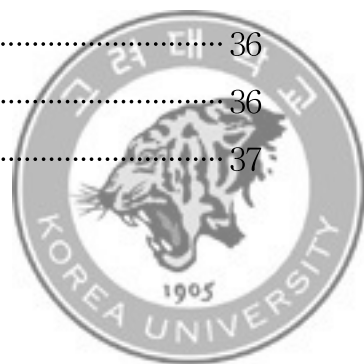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용어의 정의	3

II. 이론적 배경

1. 고등교육 국제화와 국제 학생 이동의 중요성	6
가. 고등교육 국제화와 국제 학생 이동 배경	6
나. 한국의 국제 학생 이동 현황	10
2. 교환학생 프로그램	17
가. 현황	17
나. 중요성	19
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관련 이슈와 쟁점	22

III. 연구방법

1. 사례 연구 대상 대학	29
가.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현황	29
나. 교환학생 학점 인정 현황	30
2. 연구대상	33
3. 연구자료 수집방법	36
가. 설문지 구성	36
나. 면담	37



4. 연구자료 분석방법	38
--------------------	----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동기, 국가 및 대학 선택 고려 요소.....	40
가.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결정 동기	40
나. 참여 국가 선택 요소	44
다. 해외 대학 선택 요소	45
2. 교환학생 프로그램 경험 실태와 문제점	47
가.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관련한 조력자	47
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준비 과정 중 겪은 어려움	52
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기간 중의 경험 실태 및 문제점	56
라. 교환학생 프로그램 종료 후 학점인정 관련 어려움	62
마. 해외 수학 프로그램 추천 여부 및 사유	70
3. 교환학생 프로그램 개선방안	72
가. 교환학생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의 개선사항	72
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기간 중 적응지원 관련 개선사항	73
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종료 후 학점인정 관련 개선사항	75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81
2. 결론	85
3. 제언	88

참고문헌	93
------------	----

부록	9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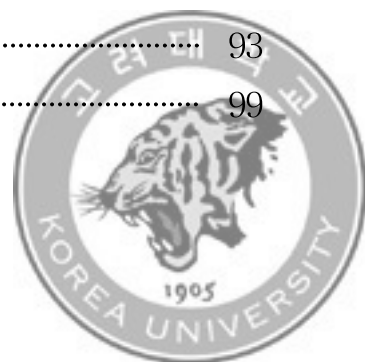


표 목 차

<표 I-1> 서울 시내 주요 대학 방문학생 프로그램 운영 사례.....	4
<표 II-1>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	11
<표 II-2> 2017년 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12
<표 II-3> 2017년 국내 외국인유학생 주요 출신 국가.....	12
<표 II-4> 국외 고등교육기관 한국인 유학생 현황	13
<표 II-5> 2017년 과정별 한국인 유학생 현황.....	14
<표 II-6> 2017년 한국인 유학생 주요 수학 국가.....	14
<표 II-7> 2014년~2016년 국내 대학의 외국대학과의 교류현황.....	17
<표 II-8> 2014년~2016년 국내 대학 설립유형별 외국대학과의 교류현황.....	18
<표 II-9> 2014년~2016년 국내 대학 소재지역별 외국대학과의 교류현황.....	18
<표 III-1> A대학 최근3년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인원	29
<표 III-2> A대학교 학과별 국외학점 인정 관련 내규 비교 예시.....	32
<표 III-3> 설문지 배부 및 회수 결과.....	34
<표 III-4> 배경변인별 응답자 분포.....	34
<표 III-5> 면담 대상자의 특성	35
<표 III-6> 설문지 구성	36
<표 III-7> 면담의 주요 내용.....	37
<표 IV-1>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시 요인별 고려 정도.....	40
<표 IV-2> 배경변인별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결정에 있어 '외국어 능력 향상'을 고려한 정도.....	41
<표 IV-3> 배경변인별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결정에 있어 '전공 학습 역량 심화'를 고려한 정도.....	42
<표 IV-4> 배경변인별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결정에 있어 '새로운 교육 과정 체험'을 고려한 정도.....	43
<표 IV-5> 배경변인별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결정에 있어 '새로운 문화 체험'을 고려한 정도.....	44
<표 IV-6> 배경변인별 참여 국가 선택에 있어 고려한 요소	45
<표 IV-7> 배경변인별 해외 대학 선택에 있어 고려한 요소	46
<표 IV-8> 출국 이전 교환학생 프로그램 준비와 관련한 조력자.....	47
<표 IV-9> 배경변인별 수학 허가 과정의 조력자.....	48
<표 IV-10> 배경변인별 외국생활 준비 과정의 조력자.....	50
<표 IV-11> 배경변인별 출국 전 해외 수학 준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53



<표 IV-12> 배경변인별 출국 전 외국 생활 준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55
<표 IV-13> 배경변인별 현지 수학 당시 현지학생들과 교류한 정도	57
<표 IV-14> 배경변인별 해외 수학 기간 중 생활 적응에 있어 현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서비스가 도움이 된 정도	59
<표 IV-15> 배경변인별 현지 생활·문화 적응에 있어서 느낀 어려움	60
<표 IV-16> 배경변인별 국외 학점 인정 학과 심사 단계에 있어서 느낀 어려움	63
<표 IV-17> 배경변인별 국외 학점 인정 절차 전반과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	69
<표 IV-18> 배경변인별 다른 학생에게 사례 대학 해외 수학 프로그램 추천 여부	71
<표 IV-19> 배경변인별 출국 전 해외 대학 학업 및 생활적응 준비를 위해 필요한 지원	72
<표 IV-20> 배경변인별 해외 수학 기간 중 현지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75
<표 IV-21> 배경변인별 사례대학의 국외학점인정(학칙 및 학과내규) 규정 관련 개선사항	77
<표 IV-22> 배경변인별 사례대학의 국외학점인정 절차 진행 관련 개선사항	79

그 립 목 차

[그림 III-1] A대학 해외취득학점 인정 절차	31
-----------------------------	----



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많은 대학이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홍보·장려하고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시기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참여 동기와 수학 국가 및 대학 선택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어떠한 경험을 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셋째,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위의 연구 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어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상대적으로 다양한 언어권과 국가들로 학생들을 파견하고 있는 한 서울시내 사립대학교인 A대학의 최근 2년간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총 236명(회수율 11.21%)의 응답 중 203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낮은 응답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참여 학생의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응답자 중 8명을 대상으로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석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대학 학생들은 새로운 경험과 외국어능력 향상을 주목적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하였다. 수학 국가 선택 시에는 해당 국가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도, 비용을 가장 많이 고려하였으며 수학 대학 선택 시에는 대학의 인지도 및 평판도를 가장 많이 고려하였다. 둘째, 사례대학 학생들은 해외 수학 준비 및 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해외 대학의 개설 과목 정보 검색, 실생활 관련 세부 정보 습득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기존 수학 경험자의 멘토링을 필요로 하였다. 셋째, 해외 수학 기간 중 현지 학생들과 교류한 정도는 평균 2.78점(4점 만점)이었으며 현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적응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가장 중요한 개선 방안으로 응답하였다. 넷째, 귀국 후 학점 인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이지 않은 학과 내규, 학점 불인정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감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전공 인정 학점 범위 확대, 일관성 있는 규정 해석 및 적용, 관련 부서간의 책임 및 권한 명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고등교육 국제화 물결 속에 커져가는 중요성과 참여 학생 수의 양적 확대에 비하여 실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각화된 조사는 빈약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해 향후 사례 대학의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개별 대학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구체적인 경험 양상과 인식 파악을 위해 프로그램 내실화와 학생들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경험 효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례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학생 세부 매뉴얼 구축, 2) 해외 수학 준비 및 현지 생활 적응을 위한 기존 해외 수학 경험자 연결 및 지식 공유 플랫폼 마련, 3)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목적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수학 국가 및 대학 선택 요인 안내와 관련 정보 제공, 4) 국외학점인정 관련 규정 세밀화. 또한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국내 고등교육 연구 분야에서 필요한 후속 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교환학생 참여 경험에 대한 학생 배경변인 및 대학 유형별로 다각화된 연구, 2) 교수진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 관련 인식 또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 3) 고등교육 국제화 및 지역화합을 위한 정부 주도의 학점이전 관련 연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기술과 통신의 발달과 함께 시작된 국제화 사회, 지식 기반 사회로의 변화 속에 고등교육 분야의 국제화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1995년 교육개혁(교개위 1995, <정보화·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방안>), 2004년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 등과 같이 굵직한 정책들과 각종 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 방식을 통하여 대학 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해오고 있고, 언론사 대학평가 및 해외 기관의 글로벌 대학 랭킹 등에서도 대학의 국제화 요소를 주요 지표로 삼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개별 대학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적 수준으로 학문의 질을 높이고 재학생의 국제적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학의 국제화 활동 범주 중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학생 이동의 증가라 할 수 있다. 대학은 각종 평가 및 대외 홍보 성과와 직결되고 있는 국제화 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Inbound 및 Outbound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령인구감소 및 재정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편 학생 개인의 차원에서는 노동 시장의 국제적 개방과 맞물려 점점 치열해져가는 취업 시장에서의 국제적 경쟁력 신장(외국어 능력, 국제적 마인드 형성 등), 해외 대학의 높은 수준의 교육 체험 등의 이유로 해외 수학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왔다.¹⁾ 대학의 대표적인 해외 교류 프로그램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실제로 외국어 향상, 학문적, 문화적 소양 획득, 가치관 변화, 정체성 확립 등 다양한 방면에서 발달적 성과를 보인다(전재은·이희영·변수용, 2017; 이수지·변기용, 2015; 이희영, 2012).

그런데 고등교육 국제화 현상의 큰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해외 수학 프로그램의 시행 및 참여 자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비하여 실제로 학생들이 학업 이수과정의 일환으로 해외로 떠나 낯선 학업 및 생활 환경에서 수학하고 돌아와 학점을 인정받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과 관심은 충분하지

1) 국가주요지표 제공 사이트 e-나라지표(<http://index.go.kr>) 유학생 현황(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 연구 또는 연수에 따르면 국내대학생의 해외연수 유학생수는 2001년 40,782명에서 2010년을 정점으로 99,035명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16년 다시 90,730명으로 반등하였다.



않은 것이 현실이다(김아람, 2015, 김미란 외 2013, 신태진, 2011). 대학에서 교류 협정 대학의 수나 해외 교류 참여생 수 증대에만 형식적으로 집중한 채 해외교류 프로그램의 본질과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 역량 강화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²⁾ 특히나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낯선 국가와 학업환경, 문화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학업적, 개인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해외 교류 프로그램 시행 및 참여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요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국내 연구는 해외에 비하여 아직 초동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학생 이동 증가와 해외 교류 프로그램의 성과, 참여 경험,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일찍이 시작되었다. 대학생의 해외교류 프로그램 참여 효과 및 한계점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지식 교류 및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 시작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점차 학생들의 태도와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차세대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참여 비용 부담, 전공 학습 단절 가능성, 참여기간, 대학간 연계 부족, 대학간 강의 수준 차이 등의 한계점이 지적(이병식 외, 2011; Ahn, 2011; Guest, Livett, & Stone, 2006; Sowa, 2002)되었다. 언어적 요소, 원활하지 못한 행정, 대학간 협정, 수업 제공 제한성 등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교환 학생들의 해외 대학에서 수업을 원활하게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하며 이는 적합한 전공과목을 제때에 수강하지 못해 학습 과정(academic cycle)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적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신태진, 2011; Ahn, 2011; Sowa, 2002), 또한 크게는 국가, 좁게는 대학별로 상이한 학사일정, 학점 및 성적 부여방식 등에 대한 국내 대학들간이나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이해나 학점 변환 방식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개별 학과장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해외에서 수학한 학점을 국내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 학점 이전과 관련한 공통의 학점이전 체계 개발 필요성은 학생들의 경험상 문제점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간 또는 국제적 고등교육 질보장체제 확립 및 교육협력의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여러 연구(전재은·변기용·이수지, 2014; 신태진, 2011; 유성상, 2010; 한신일·현경석, 2005; 김정희·주동범·박현주, 2012)에서 언급되었으나 국가 차원이나 대학 차원의 개선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대학생 해외 수학 프로그램의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Sowa(2002)는 각 대학은 스스로의 강점과 한계점을 파악하고 각 대학이 지닌 미션을 고려하여 교환

2) 연합뉴스 2017.10.13. “경찰대, 국비 교환학생 관리부실... 수강과목·학점 규제 없어”



학생 선발 시점부터 귀국까지의 전 과정을 프로그램 설계에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 해외 교류 프로그램 참여 학생이 귀국 후 원래의 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Gonyea(2008)의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 국제화 현상의 중심 주축이자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자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제 교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대학 차원의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함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어문학 및 지역학 분야에 강점을 두고 비교적 다양한 지역 및 국가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시내 소재한 사립대학 A를 사례 대학으로 선정하고 해당 대학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담을 시행한 뒤 선행 연구의 연구 결과가 사례 대학의 환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해당 대학의 미션 및 교육 환경에 적합한 해외 교류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참여 동기와 수학 국가 및 대학 선택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어떠한 경험을 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셋째,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3. 용어의 정의

가. 교환학생

교환학생은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이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학생 및 등록금을 일대일로 상호 교환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수지, 2103)으



로,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외국에 체류하며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해외의 교육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환학생에 선발된 학생은 협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해외의 자매 대학에 파견되어 수업을 수강하고 돌아와 해외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 받는다. 파견기간 및 수강 과정 등은 대학간의 협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한 학기에서 두 학기 동안 파견 대학의 정규 학기 수업을 수강하며 경우에 따라 어학연수 과정을 수강하기도 한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경우 등록금은 국내 본교에 납부하고 파견 대학의 학비를 면제받으므로 국내 대학에 비하여 학비가 비싼 국가로 파견될 경우 비용면에서 더욱 큰 이점이 생긴다.

나. 방문학생

방문학생 프로그램은 교환학생과 같이 대학 교육과정 일부 학기를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고 돌아와 학점을 인정받는 프로그램이나, 협정에 의한 일대일 학생 교환이 아닌 일방적인 학생 파견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학생은 외국 대학에 직접 등록금을 납부하고 본교의 등록금은 소속 대학의 방침에 따라 일부나 전액을 면제받는다. 대학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학생 수요를 방문학생 프로그램으로 분산하여 교환학생에 선발되지 못한 학생에게도 재학중 해외 수학을 통한 학점 인정 가능성이 한다. 대학에 따라 ‘방문학생’, ‘파견학생’, ‘자비유학생’ 등으로 방문학생 프로그램 명칭 및 등록금 납부 방식, 학기 인정 등에 대한 세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표 I-1 참조). 본교의 등록금을 일부 또는 전액 감면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본교보다 학비가 저렴한 국가로 파견되는 학생에게 방문학생 프로그램이 교환학생 프로그램보다 유리할 수 있다.

<표 I-1> 서울 시내 주요 대학 방문학생 프로그램 운영 사례

구분	프로그램명칭	본교 등록금	파견대학 등록금	비고
A대학	파견학생	전액/반액 감면	납부	
	자비유학생	납부	납부	

B대학	자비유학	납부	납부	
C대학	방문학생 VSP (Visiting Student Program)	전액/일부 감면	납부	
	자비유학	납부	납부	휴학시 학점 인정 학기 불인정
D대학	방문학생 VSP (Visiting Student Program)	일부 감면	일부 감면	
	SAP (Study Abroad Program)	휴학	납부	학점 인정 학기 불인정
E대학	자비유학	일부 감면	납부	
F대학	해외수학생	납부	납부 (일부 장학금)	

출처 : 각 대학 홈페이지

본 연구의 주제 및 이론적 배경에서 사용하는 교환학생은 위의 ‘교환학생’과 ‘방문학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대학 재학기간 중 일부 기간을 해외 대학에서 수학하고 그 성과를 본교의 정규 학기 및 졸업 학점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단, 본 연구는 특정 대학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 형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연구 방법, 분석, 결과 기술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사례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 방식에 따른 명칭인 ‘교환학생’, ‘방문학생’, ‘자비유학생’을 별도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고등교육 국제화와 국제 학생 이동의 중요성

가. 고등교육 국제화와 학생 이동 배경

세계화 흐름과 지식경제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국가간 협력과 교류가 활발해지는 국제화 현상은 정치, 경제, 사회에 걸친 모든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사회 전역에서 국제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재’의 성격을 띤 교육분야에서는 국제화 사회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위한(이수지, 2015; 김정훈·박정민, 2012; 박영희, 2011; 최준규, 2008) 상업적 이해와 시장화의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중에서도 고등교육기관에서 다양하고 활발한 국제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대표주자인 대학은 국제화 추세 뿐만 아니라 줄어드는 학령인구로 인하여 세계를 무대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대학 및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사회적 변화 및 논의의 흐름에 따라 그 의미와 양상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나(엄상현·변기용, 2012),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종합하여볼 때, 대학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문화적 환경이 국경을 초월하여 조성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학생들의 학문적 성장과 세계관 확장을 통하여 국제적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이병식, 2006; 최준규, 2008). OECD(2004)에서는 고등교육 국제화를 대학의 교육과정에 국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학내 국제화’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국제화 활동’으로 분류하는데, 후자에는 학생 및 연구자 이동, 교육 프로그램 및 기관의 이동이 포함된다(엄상현·변기용, 2012). 대학 내에서 중요성이 커져오고 점차 다각화되고 있는 국제화 프로그램들 중 학생이동(Student Mobility)은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교육 기회로 여겨진다(Rivza & Teichler, 2007). 학생이동은 국제적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태도 변화를 포함하여 학문적, 전인적 성장을 가



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교육 경험으로서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서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기대된다(이병식, 2006).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학생이동은 급속한 성장률과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OECD, 2014).

미국은 대표적인 국제 학생 이동 유입국으로, 특히 국가의 이익과 안보가 국제화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면서 정부의 지원 및 규제 속에 고등교육 국제화가 시작되었다(김미란 외, 2013). 1946년 풀브라이트(Fulbright) 재단 설립을 토대로 세계 각지의 우수 유학생 및 연구자들이 후원 및 교류하게 되면서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으로 학생 유입이 증가하게 되었다. 국제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해외로 유학하는 미국 대학생 이동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영어권 국가나 미국과 유사한 문화권의 국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수 외, 2009).

유럽 역시 주요 유학생 유입 지역이나, 유럽의 학생 이동이 증가한 데에는 다른 배경이 존재한다. 유럽은 1990년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을 공공정책으로 시행하면서 교육의 대중화로 인하여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고등교육기관들이 학업, 연구 및 운영과 관련한 과중한 부담을 겪게 되었다. 이후 1999년 유로화 도입을 위하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공공지출 감소 목적으로 고등교육예산을 삭감하였고, 이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재정 확보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유럽 국가들은 민영화 전략을 세우기 시작하였다(Sporn, 1999). 동시에 유럽 연합 국가들간의 결속력 강화 및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럽 지역 공통의 교육체제 마련 및 교육과정의 질 보장을 목적으로 한 볼로냐 선언이 선포되었고 이러한 유럽연합 체제를 기반으로 유럽국가들 간의 학생이동이 유럽 고등교육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볼로냐 프로세스 시작 이전부터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럽국가간 교육 교류 및 협력이 이루어져오고 있었고 이는 이후 소크라테스 프로그램,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학생 및 교수 교류 활성화의 발판이 되었다(손승남, 2017).

한편 아시아 지역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외국인 유학생 유입에 비하여 자국 학생들이 해외로 이동하는 비중이 큰 특징을 보인다(함자영, 2016).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제력 신장과 인구 증가,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해외로 유학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90년 이후 WTO체제 출범, GATS 체결 등으로 인한 경제 체제 변화의 흐름과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등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세부 지역이나 국가별 경제력, 언어, 인종, 문화, 교육연구의 질 등의 격차가 다양한 만큼 유학생 유치 현황에서도 큰 격차가 있다(OECD, 2015; 함자영, 2016).

한국의 교육시장 개방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에서 무역자유화 목록에 교육서비스가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이정미, 2004). 이후 5·31 교육 개혁안을 토대로 고등교육 시장 개방 및 국제화 정책이 확대 시행되고 대학 세계화, 자율화, 특성화, 다양화가 다각도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김안나, 2005). 세계화에 따른 교육 시장개방 흐름 속에서 한국의 대학들은 세계의 우수 대학들과 경쟁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더불어 학령인구 감소 및 재정확보 문제로 인하여 대학의 국제화 정책은 대학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04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project)에서 부터 2012년 고등교육협력 시범사업(CAMPUS Asia project)에 이르기까지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학생 교류를 강조하는 국제화 정책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 국내 유입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해오고 있다(김미란 외, 2013; 전재은 외, 2014; 함자영, 2016).

함자영(2016)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제학생 이동을 이해하는 관점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는데, 첫째는 더 나은 고등교육의 기회로 바라보는 신자유주의관점, 둘째는 국제학생이동의 현상 속에서 중심국과 주변국 간의 불균형에 주목하는 갈등주의적 관점, 셋째는 국제학생이동 자체가 세계화 환경 속에 새로운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이다.

우선 고등교육 국제화의 발단이 되는 세계화 현상을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봤을때 국제 학생 이동은 더욱 우수한 교육의 기회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교육에 있어 개인의 선택권을 중요시(Shields, 2013)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은 국제 학생 이동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학생 개인은 세계화되고 있는 노동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 더 나은 고등교육의 기회 확보, 외국어 또는 다문화 이해 능력 등의 국제적 능력 신장 등을 위하여 국제 학생 이동을 선택하고, 이러한 현상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제약-촉진 이론(push-pull



theory)에서는 개인의 특성 및 환경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학생이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Li & Bray, 2007; Mazzarol & Soutar, 2002; McMahon, 1992). 학생들이 본국에서 체험하는 제약 요인(개인 특성, 정치, 경제, 학문, 사회 문화적 동기)이 유학 대상국에서 촉진하는 요인과 일치할 경우 국제 학생 이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학 동기의 구체적인 예로는 학문적 전문성 함양, 유학의 성과물을 통한 취업 기회 및 경제적 혜택 기대, 새로운 문화 체험 등이 있다(Li & Bray, 2007). 이와 관련한 한국 대학생들의 유학 계획 결정 요인으로서는 학생의 교육열 및 경제적 수준, 영어 향상 의지와 같은 학문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가 주요하였으며(전재은, 2013), 구체적으로 미국을 유학 국가로 선택하는 이유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위 상승 또는 학문적 동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김종영, 2010)으로 나타났다.

국제 학생 이동과 관련한 또 다른 주요 이론은 Knight와 Morshidi(2011) 등이 제안한 교육허브이론으로, 교육허브는 “교육, 훈련, 지식생산, 혁신 계획에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 및 국제 행위자 그룹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계획된 노력”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교육 허브’ 정책을 추진 중인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주요 국가들(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등)이 교육, 연구, 외국인 학생 유치 등의 국제화 현상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가능성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국제 학생 이동 증가 현상을 학생 개인 또는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만 설명하여 그 바탕에서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학적 요인을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함자영, 2016).

갈등론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국제 학생 이동은 양극화와 학문 자본주의, 고등교육 상업화로 인하여 고등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Shields, 2013). 세계화 양상에서도 발생하는 국가간의 무역 불균형 및 힘의 불균형이 국제학생이동을 통하여 고등교육분야에도 반영된다는 것이다. Altbach(1998)는 중심-주변 이론(Center-Periphery Theory)을 통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존재하는 정치경제적 불평등이 고등교육기관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중심국가들은 우수한 연구 및 학문 시스템과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주변국가의 학생들로 하여금 유학을 결정하게 하며 세계 각지이 우수한 학생이 계속 중심국가로 집중 유입되어 학생 양극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중심국가는 더



육 확고한 중심 위치를 다지게 되는 반면 주변국가는 중심국가의 학문 시스템을 모방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지 못하여 교육체제의 불균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갈등론자의 관점에 따른 학생이동의 불균형은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에도 발견할 수 있다. 주혜영·유병부(2011)의 연구에서는 유학생 지원 전략에 영어권과 비영어권의 차등이 존재하고 그 결과 국내 유입 유학생의 국가별, 언어별 양극화 현상이 초래됨을 지적하였으며, 정부 주도의 일방적 국제화 전략이 아닌 대학 자율의 유학생 유치 전략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비영어권 유학생에 대한 국내 대학생의 차별 및 편견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다문화 이해 교육 및 인식 전환 등을 포함한 정책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갈등론자들이 국제 학생 이동 현상에서의 교육 기회 불평등에 주목한 반면, 신제도주의자들은 국제학생이동 확산을 통한 고등교육체제의 제도적 동형화에 주목하며 향후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신제도주의자들은 학생이동을 통하여 국제적 연결망이 형성되고 이어 세계적으로 공통의 고등교육체제가 형성될 수 있을것으로 예측한다(함자영, 2016). 신제도주의에서는 20세기 후반 이후 진행된 세계적 교육 확산을 거시적 관점에서 조직 및 구조의 동형화(isomorphism) 현상으로 바라본다(Wiseman & Baker, 2006). 이 동형화의 예로 국제기구 또는 지역 연합체를 중심으로 국제학생이동이 증가하는 현상과 국내외 대학의 외국어 강의 확대 정책을 들 수 있다. 최근 학생이동 확산은 정치,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고 있으며 유학생 유입중심국으로 새로운 국가들이 주목받으면서 학생이동 추이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제도주의자들은 개별 국가차원의 교육연구를 넘어서 국가간 네트워크를 통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제도화된 추세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국제학생이동 확산을 통하여 각 국가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적 연결망을 형성하며 점차 동질화된 교육이념을 확립하고 새로운 체제의 교육 및 지식 양상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함자영, 2016).

나. 한국의 국제 학생 이동 현황

한국의 국제 학생이동은 세계 학생이동의 추세와 같이 지난 10년 간 급



속하게 증가하였다. 국제 학생이동 현황은 한국 학생이 외국으로 나가서 공부하는 국외 한국인 유학생(Outbound)과 외국인 학생이 한국으로 들어와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Inbound)으로 나뉜다. 한국의 국제 학생 이동 현황은 Inbound와 Outbound 인원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으며, 각 유형별 학생 이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Inbound 학생이동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인원은 1970년 321명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현재 12만 3858명이 국내의 고등교육기관에 수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교육부, 2017; 함자영, 2016). 최근 10년간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외국인 유학생 현황은 <표 II-1>과 같으며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에 8만 9537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14년에 8만 4891명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

(매년 4.1 기준, 단위 : 명)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유학생 수	75,850	83,842	89,537	86,878	85,923	84,891	91,332	104,262	123,858

출처 : 교육부(2017).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http://www.moe.go.kr>)

2017년 기준 한국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학 과정은 <표 II-2>와 같다. 전체 수학인원 중 약 58%인 7만 2032명이 대학원 및 학부 학위 과정에, 약 29%인 3만 5734명이 어학연수 과정에, 약 13%인 3만 5734명이 기타연수 과정에 수학하고 있다.



<표 II-2> 2017년 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단위 : 명)

과정	학 위 과 정			어학연수	기타연수	합 계
	대학원	대학	소계			
유학생 수	26,066	45,966	72,032	35,734	16,092	123,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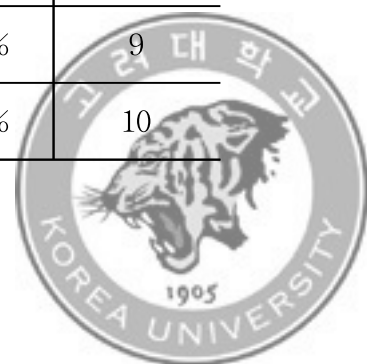
출처 : 교육부(2017).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http://www.moe.go.kr>)

2017년 기준 국내 외국인유학생의 주요 출신 국가는 <표 II-3>과 같다. 국내 유입 외국인 학생 중 가장 많은 비중은 중국학생이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약 55%에 달한다. 중국 다음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는 베트남, 몽골, 일본, 미국, 우즈베키스탄, 대만, 프랑스 순이며,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시아지역의 학생들이다.

<표 II-3> 2017년 국내 외국인유학생 주요 출신 국가

(단위 : 명)

지역	국가	2017년	비율	순위
아시아	중국	68,184	55.05%	1
	베트남	14,614	11.80%	2
	몽골	5,384	4.35%	3
	일본	3,828	3.09%	4
	우즈베키스탄	2,716	2.19%	6
	대만	2,195	1.77%	7
	인도네시아	1,334	1.08%	9
	말레이시아	1,177	0.95%	10



북미	미국	2,767	2.23%	5
유럽	프랑스	1,344	1.09%	8
기타		20,315	16.40%	
합계		123,858	100.00%	

출처 : 교육부(2017).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http://www.moe.go.kr>)

2) Outbound 학생이동

해외 한국유학생은 1997년 14만 9933명에서 2017년 23만 982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10년간 국외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한 한국인 유학생 현황은 <표 II-4>와 같다. 해외 한국인 유학생 수는 2011년 26만 2465명으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15년 21만 4696명까지 감소하였다가 서서히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II-4> 국외 고등교육기관 한국인 유학생 현황

(매년 4.1 기준, 단위 : 명)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유학생 수	240,949	251,887	262,465	239,213	227,126	219,543	214,696	223,908	239,824

출처 : 교육부(2017). 국외 한국인 유학생 현황(<http://www.moe.go.kr>)

이는 대학원과 학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학위과정, 어학연수, 교환학생 및 단기연수, 비학위과정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며 2017년 수학과정별 한국인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5>와 같다.



<표 II-5> 2017년 과정별 한국인 유학생 현황

(단위 : 명)

과정	학 위 과 정			어학연수	기타연수	합 계
	대학원	대학	소계			
유학생 수	32,189	110,697	142,886	31,132	65,806	239,824

출처 : 교육부(2017). 국외 한국인 유학생 현황(<http://www.mo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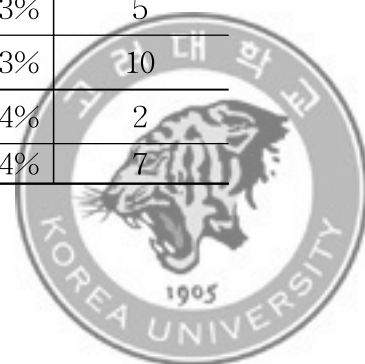
2017년 국외 한국인 유학생 중 60%인 14만 2886명이 대학원 및 학부 과정을 포함한 학위과정에, 13%인 3만 1132명이 어학연수 과정에, 27%인 6만 5806명이 교환학생, 단기연수생 등을 포함한 기타 연수과정에 수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 유학생의 해외 유학 국가와 관련하여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 국가로 수학 국가가 집중되었던 점에 비하여 최근 유학 국가가 다양화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함자영, 2016; 전재은 외, 2014). 특히 중국과 동아시아권 국가를 대상으로 유학하는 한국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표 II-6>은 2017년 한국인 유학생이 수학한 주요 10개국의 현황을 보여주는데, 한국 유학생이 가장 많이 유학하는 국가는 중국과 미국이며 이 두 나라에 전체 한국인 유학생 중 약 56% 이상의 학생이 집중되어 있다.

<표 II-6> 2017년 한국인 유학생 주요 수학 국가

(단위 : 명)

지역	국가	2017년	비율	순위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국	73,240	30.54%	1
	호주	16,770	6.99%	3
	일본	15,457	6.45%	4
	필리핀	13,257	5.53%	5
	뉴질랜드	6,060	2.53%	10
북미	미국	61,007	25.44%	2
	캐나다	8,735	3.64%	7



유럽	영국	11,065	4.61%	6
	프랑스	6,655	2.77%	8
	독일	6,087	2.54%	9
기타		27,578	11.50%	
합계		239,824	100%	

출처 : 교육부(2017). 국외 한국인 유학생 현황(<http://www.moe.go.kr>)

미국으로 유학가는 한국인 유학생은 2001년에 5만 8457명(39%)에서 2017년에는 6만 1007명(25.4%)으로 학생 수 자체는 증가하였지만, 전체 유학생 대비 미국으로 가는 학생 비율은 감소하였다. 한편 중국으로 유학가는 한국인 학생 수는 2001년에 1만 6372명(10.9%)에서 2017년 7만 3240명(30.5%)으로 학생 수와 전체 유학생 대비 비율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교육부, 2017). 이러한 양상은 최근 중국이 핵심강국으로 부상하며 아시아 지역의 정치 및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세계 정세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전재은 외, 2014).

3) 국제 학생이동과 관련한 국내 정책

세계화에 따른 교육시장 개방 트렌드에 발맞추어 한국 정부는 꾸준히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과거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 부문 대외개방 계획’(1996년), ‘국제대학원 지원’(1997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2001년), ‘우수대학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2002년)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이병식, 2005), 2000년대 중반부터 ‘Study Korea 프로젝트(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2004년), ‘Campus Asia’ 사업(2009년), ‘Global Korea Scholarship(한국 정부 국제장학프로그램, 이하 GKS)’ 프로그램(2009년)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한편, 학생 수 부족으로 재정난에 직면한 지방대학이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단순 유학생 유치에 치중하면서 국내 고등교육 국제화의 질 문제가 대두되었다(김미란 외, 2013).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같은 Inbound 정책뿐 아니라 해외 분교 설립지원과 같은 Outbound 정책을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또한 정부는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역량 및 질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2011년)를 시행하고, 해당 인증제 평가 방식의 개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노력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2015)' 시행(교육부, 2015; 변기용 외, 2011)을 통하여 유학생 저변 확대, 출신국 다변화 및 한국유학 매력도 제고의 3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

세계 무대에서의 교육기관간 경쟁 심화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국내 대학들의 생존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제 학생 이동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대학 국제화 노력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집중되어있는 편이다. Outbound 학생 이동과 관련한 정부, 대학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나 관련 프로그램 관리 역량 또는 질 제고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기제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외국어 능력을 포함한 취업,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제적 역량과 마인드 함양을 목적으로 교환학생, 어학연수 등의 해외 수학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으나 대학들은 단순한 교환학생 참여 인원이나 해외 교류협정 대학 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최근 해외의 많은 연구에서는 단기 해외 수학 경험의 효과에도 주목을 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해외 수학 경험은 학생의 개인적 발달과 동시에 대학의 국제적 역량 강화 차원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다. 서로 다른 국가의 대학간 교류 협정을 통해 학기나 연단위로 학생을 교환하는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많은 국내 대학 기관들이 주요 국제화 전략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경험적 연구를 찾기 어렵다(박소진, 2010). 또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고 있는 Inbound 학생 이동과 대비하여 Outbound 학생 이동 중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캠퍼스 아시아 사업³⁾이 거의 유일(김선주 외, 2016)하며 대부분의 대학 내에서도 자교 학생의 해외 수학 프로그램 대상 투자에 비하여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기울이고 있어 Outbound 학생 이동은 학생 개인의 필요나 욕구에 의한 참여 요인이

3)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한중일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3국 순환 공동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운영하고 3국 정부가 지원한다(전재은, 변기용, 이수지, 2014)



더욱 큰 것으로 여겨진다.

2. 교환학생 프로그램

가. 현황

대학생의 대표적인 Outbound 학생 이동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비하여 관련 연구나 상세한 통계 자료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인원에 대한 자료는 대학정보공시제도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나 대학별 세부 운영 유형이나 국가별 파견 인원 등에 대한 일목요연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표 II-7>은 대학정보공시에서 집계한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 대학들이 본교 학생을 해외 대학에 파견하거나 외국인 유학생을 본교로 유치한 인원 추이를 보여준다. 해외대학 파견 인원의 경우 2014년 38,228명에서 2015년 40,210명으로 약 5%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3%증가한 41,503명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인원은 2014년 26,086명에서 2015년 24,821명으로 약 5% 감소하였다가 2016년 27,565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11%가 증가하여 2014년도 유치 인원을 약간 상회하게 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II-7> 2014년~2016년 국내 대학의 외국대학과의 교류현황

(단위: 명)

연도	Outbound 파견인원 (자대학교→타대학교)	Inbound 유치인원 (타대학교→자대학교)
2014	38,228	26,086
2015	40,210	24,821
2016	41,503	27,565

출처 :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상기의 외국대학과의 교류현황을 대학 설립 유형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자료는 각각 <표 II-8>, <표 II-9>와 같다.



<표 II-8> 2014년~2016년 국내 대학 설립유형별 외국대학과의 교류현황
(단위:명)

구분	Outbound 파견인원 (자대학교→타대학교)			Inbound 유치인원 (타대학교→자대학교)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국공립	7,265	7,542	7,925	3,247	2,910	3,517
법인	972	927	1,198	936	915	1,121
사립	29,991	31,741	32,380	21,903	20,996	22,927
합계	38,228	40,210	41,503	26,086	24,821	27,565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대학설립유형별 외국대학과의 교류 인원 추이는 전체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Outbound 총 교류인원이 3년간 증가세를 보인 반면 법인대학의 경우에는 2014년에 972명에서 2015년으로 927명으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2016년 1,198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표 II-9> 2014년~2016년 국내 대학 소재지역별 외국대학과의 교류현황
(단위:명)

구분	Outbound 파견인원 (자대학교→타대학교)			Inbound 유치인원 (타대학교→자대학교)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서울	14,489	15,515	15,746	14,569	14,453	15,440
기타 광역시	8,640	9,956	10,811	5,200	5,009	5,770
도지역	15,099	14,739	14,946	6,317	5,359	6,355
합계	38,228	40,210	41,503	26,086	24,821	27,565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국내 대학의 소재 지역별 외국대학과의 교류 인



원 추이를 살펴보면 도지역 소재 대학의 경우 Outbound 인원이 2014년 15,099명에서 14,739명으로 약 2% 감소한 뒤 2016년 14,946명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2014년의 파견인원을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기타 광역시 소재의 대학에서 해외로 파견된 인원은 2014년 8,640명에서 2015년 9,956명으로 약 15%상승한 뒤 2016년 10,811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9% 상승하였다. Inbound 인원 추이의 경우, 도지역 소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인원이 2014년 6,317명에서 2015년 5,359명으로 약 15%감소하여 서울이나 기타 광역시 소재 대학에 비하여 큰 감소폭을 보였으나 2016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19% 증가한 6,355명으로 증가하였다.

지역별 Inbound 및 Outbound 교류 인원의 인원 분포를 살펴보면 Outbound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총 인원 41,503명 대비 서울 소재 대학은 15,746명으로 약 38%, 기타 광역시 소재 대학은 14,946명으로 약 26%, 도지역 대학은 14,946명으로 약 36%이다. 한편, Inbound 교류 인원은 2016년 기준 총 인원 27,565명 중 서울 소재 대학이 약 56%, 기타 광역시 소재 대학은 5,770명으로 약 21%, 도지역 소재 대학은 6,355명으로 약 23%의 분포로 광역시 및 도지역 소재 대학으로 유치되는 인원을 합쳐도 서울 소재 대학에서 유치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의 평판도 및 수도권 선호도에 기인한 결과로 예상된다.

나. 중요성

해외 교환학생 경험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해외에서는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전재은 외, 2017; 신현석 외, 2015; 이수지 · 변기용, 2015; Baik, 2015). 교환학생을 비롯한 학위 유학, 단기 해외 어학연수 등 대학생의 해외 수학 경험 효과와 관련해서는 주로 참여 학생의 외국어능력 향상, 문화적 능력 신장, 학습 태도 및 진로관 변화, 개인적 발달 등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외국어 능력 향상과 해외 연수,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여럿 수행되었지만 결과가 일관적이지는 않다. 먼저 전재은 외



(2017)의 연구에서는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 이전과 참여 종료 및 귀국 이후의 시점별로 자료를 수집하여 참여 효과를 분석하고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이전과 이후 외국어 능력이 향상되었고 그 효과가 유지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여기에 개인 변인에 따른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수지·변기용(2015)의 연구에서는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참여 학생의 외국어 능력 및 외국어 자신감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aik(2015)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해외 경험 수준에 따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및 외국어 사용 능력이 신장됨을 확인하였다. 한편 대학생의 단기 해외 연구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인 박소진(2010)의 연구에서는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영어실력 향상이 해외 연수의 중요 동기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해외연수를 통하여 반드시 영어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였다. 해당 연구의 참여 대학생들은 영어 능력 향상보다도 새로운 외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외국인과의 교류 등 새로운 경험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진·김경원(201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해외연수 동기의 중요도와 만족도간 인식 차이를 조사하였으며, 외국어능력 향상 및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도에 비하여 만족도가 크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고, 해외연수 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외국어 향상을 위해서는 연수 전 사전 학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외국어 능력과 관련한 효과는 언어의 다양성 및 측정 도구와 방법 선택 등의 현실적 문제(전재은 외, 2017)로 인하여 교환학생 프로그램 효과와 관련한 국내 연구에서 보다 다각적이거나 심층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외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로, 교환학생 경험의 또 다른 효과로 꼽히는 문화적 능력의 경우 역시 구체 역량에 대한 정의가 쉽지 않으며, 각 연구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전재은 외, 2017; 이수지, 2013). 전재은 외(2017)의 중단 연구에서는 이문화권과의 자연스러운 교류, 인내심, 이해도 및 관심도를 중심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교환학생 참여 이후 문화적 역량 향상 및 효과 유지를 밝히고, 문화적 역량 향상에 현지 학생과의 교류 빈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수지·변기용(2015)의 질적 연구는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이문화 인식 변화 및 특정 인종이나 국가 관련 편견 인식, 포용, 해소와 관



련한 태도를 발견하였고, 이희영(2012)의 연구에서도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 면담을 통하여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편견 해소,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Baik(201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해외 경험 수준이 지구 시민성 의식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의 한중일 교환학생 프로그램인 CAMPUS Asia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변기용 외(2016)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해당 프로그램 참여 이후 막연한 반일감정 등에서 벗어나 참여국가간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태도를 갖게 되었으며 특히 일부 학생들은 중국, 일본 학생들 간의 갈등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셋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학습 태도 및 진로관 변화 또한 긍정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수지·변기용(2015)의 질적 연구에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외국 학생들의 활발한 수업 참여 태도와 수평적인 교수-학생 관계를 경험하면서 귀국 이후에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수와 보다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의 참여 학생들은 외국 수학 경험을 통하여 해외 취업에 대한 기존의 흥미도와 본인의 적성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새롭게 해외 취업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는 등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 두 명을 대상으로 한 미국 대학 수업참여 경험에 대한 김아람(2015)의 질적 연구에서는 국내 소속 대학 및 미국 수학 대학의 수업 환경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전후로 국내 소속 대학의 수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형성됨을 발견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한 명은 국내 대학과 미국 대학의 수업방식 차이로 인하여 귀국 이후 국내의 수업에 답답함을 느끼며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이전과 비교하여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교수와 의사소통을 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었고, 다른 참여자는 교환학생 경험을 통하여 전공과 관련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귀국 후 국내 대학의 수업에 더욱 만족하며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학생들의 ‘굴절의 경험’에 주목하며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수업경험 중요성 및 귀국 후 재적응과 진로 선택 과정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변기용 외(2016)의 연구에서는 CAMPUS Asia 사업 참여 이후 학생들이 전공 지



식 이해도 심화, 학습 자료 확보 및 논문 주제 탐색 등의 학문적 성과와 학습 태도 변화를 경험하고 중국 또는 일본에서의 수학 경험 이후 중국이나 일본으로의 취업 또는 유학을 고려하게 된 학생들이 상당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넓은 시야 및 세계관, 자신감, 독립심 등을 포함한 개인적 발달 역시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결과(전재은 외, 2017; 이수지, 2015; 이희영, 2012)이다. 먼저 전재은 외(2017)의 종단 연구에서는 세상에 대한 넓은 시야, 자신감, 독립심, 자아성찰, 생존 능력 등을 측정하여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전후로 학생들이 개인적 성장을 경험하고 참여 종료 이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대학 입학 이전 해외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대학 재학 중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개인적 발달 정도는 완화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수지·변기용(2015)의 질적 연구는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자립심 및 도전정신 향상, 자아 성찰 기회 생성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사회적, 심리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희영(2012)의 연구에서는 중국 및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외국인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형성되고 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늘게 되는 개인적 발달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신현석 외, 2015; 김선주 외, 2016; 변기용 외 2016)에서 한국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자각, 동아시아 공동체 의식 강화 면에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긍정적 참여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대학생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다양한 측면에서 대학생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가능하게 하며 학습 및 개인적 발달을 이끌어내고 있어 대학과 학생 개인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관련 이슈와 쟁점

교환학생 프로그램 관련 쟁점은 크게 프로그램 참여 및 효과 요인과 운영 실태 및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요인 및 효과 영향 요인

대학생의 교환학생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 동기로는 외국어 습득, 새로운 문화 경험, 진로 및 취업 도움, 자기탐색 등이 보고되었다(박소진, 2010; 이병식 · Palmer · 박애리, 2011; 이희영, 2012; 정혜진 · 김정원, 2013). 또한 프로그램 참여 결정 이후 수학 국가 선택과 관련한 영향 요인으로서는 해당 국가의 인지도, 지인의 추천, 비용, 환경 및 지리적 요인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수학 대학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서는 학교의 수준, 교과목 다양성, 다른 대학들과의 교류 현황, 교류관계 등이 보고되었다(Mazzarol & Soutar, 2002). 이희영(2012)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주로 개인적 발전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으로서의 가치에 중점으로 두고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하였으며, 국가와 학교 선택 요인은 학생에 따라 다양하고 프로그램 참여 결정과 국가 선택 결정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전공과 관련한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수지·변기용(2014)에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전 목표 설정 여부, 참여 학생의 성격 및 태도, 외국어 능력 등에 따라 발달 양상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환경 차원의 요인 역시 참여 학생의 경험 및 발달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언급하며 프로그램 환경 요인의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자와 현지 학생 간의 교류 빈도가 높을수록 문화적 능력 발달 속도가 높아지며(전재은 외, 2017), 현지 학생 교류의 중요성은 다른 연구에서도 프로그램 표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미·김찬란, 2013, 신현석 외, 2015). 해외의 연구들과 달리 국내에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기간에 따른 효과의 차이 검증에 대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나 이선미·김찬란(2013)의 연구에서 단기 해외 연수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문화간 감수성 향상을 확인한 점을 고려하면 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발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실태 및 문제점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참여경험 실태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되는 문제요소로는 비용 및 학업단절, 과중한 학생 부담, 해외 학점 인정, 문화적 차이, 귀국 후 재적응, 미숙한 행정처리 및 운영 전략 등이 있다(이희영, 2012; Ahn, 2011; 신태진 2011; 양성혜, 2007)

해외 수학 경험이 대학생 국제적 역량, 개인적 발달 및 진로개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많은 대학들이 재학생들의 해외 수학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교환 학생 등의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에 필요한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다양한 소득 수준의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현실적 한계가 발생한다. 해외 수학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참여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국내 소속 대학 또는 해외 수학 대학 등록금, 항공비, 비자 발급 비용, 해외 체류기간의 거주비, 생활비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 출국 또는 정착 지원을 위한 사설 유학원 비용, 여행비용 등이 소요된다. 해외 수학 기회 확대를 위하여 여러 대학에서 선발 인원내 제한이 많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외에 해외 수학기간 동안 본교 등록금을 감면해 주는 방문 학생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교환학생에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도 해외에서 수학하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해외 체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다. 대학에 따라 해외 체류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이며, 국내 등록금 마련도 수월하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는 관련 제반 비용 모두를 지원하는 외부 장학금에 선발되지 않는 이상 해외 수학 기회를 갖기는 쉽지 않다.

한·중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들의 특성을 비교한 이병식·박상욱(2012)의 연구에서는 월평균 소득이 높은 학생일수록 국제교류 참여 의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고, 많은 교환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산학 연계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Sowa(2002)의 연구에서는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가치와 프로그램 운영상 한계점, 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하며 미국 내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참여 비용, 전공 학습 단절 가능성, 참여기간 및 대학 간의 연계 부족, 대학 간의 강의 수준 차이 등을 언급하였다. 호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Guest, Livett, & Stone, 2006)에서는 이공계 전공 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담 때문이며, 또한 이



공계열 학문적 특성 및 교육과정 구성상 전공 공부를 중단하기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신태진(2011)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원활히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게 되면 학술 교류 및 교육적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학년등 수준에 맞는 전공 수업을 제시기에 수강하지 못하여 학습 과정(academic cycle)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스웨덴 대학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Ahn(2011)의 연구에서 따르면 학생들이 전공 과목 선택 제한 또는 학교 행정 미흡 등으로 수강 희망 과목을 듣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학업 단절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렇듯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한계점으로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지적됨에 따라 해외에서는 더 많은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Twombly et al., 2012)과 단기 교류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과 대안 가능성을 논하는 연구(Chieffo & Griffiths, 2004)들도 진행되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작용하는 또 다른 요소는 서로 다른 국가의 대학들 간의 학사제도와 해외 취득 학점 인정 문제이다. 학생들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 학기 또는 그 이상 해외의 대학에서 수업을 수강하고 본교로 돌아와 해외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받으며 이는 본교 학위 취득을 위한 졸업 이수 학점에 포함된다. 그런데 국가간, 또는 같은 국가 소재의 대학 간에도 학사일정, 수업시간, 학점의 개념, 성적 부여 방식 등에 매우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공통의 학점 변환 기준 마련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나 대학 교육과정의 이수 단위인 학점에 대한 정의가 국가, 지역, 개별 대학에 따라 다르게 설정됨에 따라 해외 취득 학점을 인정하는 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학점의 개념은 크게 교수와 학생이 만나 강의(또는 세미나, 튜토리얼의 형식)가 진행되는 수업시간(contact hour)을 기반으로 한 학점 개념과 교과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강의, 실습, 과제, 프로젝트 등 모든 종류의 학습 형태를 아우르는 학습 성과(learning outcome) 및 학습량(workload)을 기반으로 한 학점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 나라를 포함한 많은 아시아 국가⁴⁾는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주로 학기 기간과 밀접하게 책정되는 수업시간

4) 아시아 대학들의 학점 및 성적 부여 체계는 Hotta, T(2010)의 연구 참조 : 아시아 13개국(한국, 일본, 중국, 미얀마,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을 대상으로 학점 및 성적 관련 국가적 차원의 기준 및 실제 운영 현황을 조사함.



을 바탕으로 학점을 정의한다. 반면, 유럽의 경우 1999년 유럽 20개국의 고등교육 장관이 유럽 대학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럽 지역에 단일한 고등교육체계((EHEA: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를 설립 하겠다는 내용으로 발표한 볼로냐 선언(Bologna Declaration)을 기점으로 범지역적 공통의 학위과정을 구축하고 대대적인 국가간 학생 이동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통 학점 이전 체계인 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ECTS)⁵⁾를 개발하였다. ECTS에서 정의하는 학점은 미국 및 아시아에서 정의하는 단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 아니라, 수업시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학습량(workload) 및 학습성과(learning outcome)를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 학습은 목표 학습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학생이 행하는 모든 종류의 학습 활동(예: 강의, 세미나, 프로젝트, 실습, 자가학습, 시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뜻하며, 아시아 지역의 학점 체계에 비하여 학점의 구성요소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양적요소 및 질적 요소가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정의되고 부여되는 학점을 변환하여 인정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학점인정 방식은 개별 대학 차원에서 각자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소속 학생이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이전하는 것으로 국내 대학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인접 지역 국가 대학들이 모여 구성한 연합 또는 협의체 차원에서 회원 대학 간의 원활한 학생 교류를 위하여 개발 운영하는 공통의 학점이전 체계로, 아세안 지역의 대학연합체들인 University Mobility in Asia and Pacific(UMAP), ASEAN University Network(AUN)에서 개발한 UMAP Credit Transfer Scheme(UCTS)과 ASEAN Credit Transfer System(ACTS)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에서 범지역적 정치, 경제, 사회 통합의 차원에서 국가간 교육, 훈련 교류를 장려하고 공통의 교육체계를 구축 목적을 위해 시행중인 ECTS가 있다.

국내 대학의 해외 취득 학점 인정 방식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제시 또는 관리되는 학점 변환 기준이나 세부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실정이다. 교환학생의 해외 학점 이전과 관련하여 국내 대학에 공통 적용되는 유일한 지침은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로서, 각 대학은 학칙에 따라

5) 자세한 내용은 European Commission(2015)의 ECTS Users' Guide 참조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 이수 학점의 1/2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학들은 해외 취득 학점을 어떤 기준으로 변환 계산하여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개별 학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들이 학점 이전 기준을 개별 학과의 재량 또는 내규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 대학에 따라, 또한 학과에 따라 다른 기준에 의하여 변환되고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CAMPUS Asia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한, 중, 일 대학간 공식적으로 적용 가능한 학점 전환 체계가 부재하는 데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ECTS, ACTS 등과 같은 시스템 개발 논의의 필요성이 언급되었고(전재은·변기용·이수지, 2014), 고등교육 지역화, 화합의 측면(Akiyoshi et al, 2014), 고등교육 질보장체제 확립의 측면(한신일·현경석, 2005; 김정희·주동범·박현주, 2012)에서도 공통적이고 공식적인 국가간 학점 교류 체계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전략과 관련하여 대학과 정부차원에서 국제 학생 이동에 대한 중요성과 양적 증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실제 국제 학생 이동 경험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정책 또는 행정적 관심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김미란 외, 2013; 신태진, 2011; 이수지·변기용, 2015).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행정적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한 신태진(2011)의 연구에서는 교환학생 선발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홍보 및 행정적 지원 부족, 학점 인정 및 학사 관리 융통성 등을 지적하며 학사 및 행정 제도 차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해외 대학 수학 허가 과정에서의 부담 완화 필요성과 미숙한 행정운영으로 인한 어려움은 이희영(2012)의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 이수지·변기용(2015)의 연구에서는 파견 국가, 지역, 수학 대학의 특성에 따라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경험 및 발달 양상에 차이가 있는 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양성혜(2007)의 연구에서는 스페인어권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 학생들이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현지인과의 의사소통 등에서 경험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언어권이나



지역별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해외 연구에서는 Sowa(2002)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한계점 및 참여 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살펴 운영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프로그램 참여 영향 요인(Doyle et al., 2010; Gonyea, 2008) 및 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특성 등을 분석하는 연구(Stroud, 2010) 등이 수행되어왔다. 그 외에도 참여 학생의 전공 및 프로그램 참여 기간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극대화를 위한 운영 전략을 탐색하는 연구들(Chieffo & Griffiths, 2004; Cushner & Mahon, 2002)도 이루어져 왔다.

대학교육의 국제화가 대학의 생존전략으로 연계되고 필수부가결한 현상이 되고 있는 만큼, 국제화 전략의 중심에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과 효과 증진을 위하여 국내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 및 고민이 요구된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상의 문제점 및 운영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사례연구로서, A대학교의 최근 2년 해외 수학 프로그램 참여 후 학점 인정을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설명에 앞서 A대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례연구 대상 대학

가.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현황

A대학교는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로서 45개 언어 전공을 바탕으로 한 외국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88개국 554개 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협정을 통해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대학에서 최근 3년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로 파견한 학생의 수는 아래 <표III-1>과 같이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어 및 지역학 교육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자체 역사와 시대적 흐름을 고려할 때 A대학 내에서의 국제화 교육 및 학생 해외 파견의 중요성은 매우 큰 것으로 여겨진다.

<표III-1> A대학 최근3년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인원

학기 프로그램	2015년 1학기	2015년 2학기	2016년 1학기	2016년 2학기	2017년 1학기	2017년 2학기	총합계
교환학생	223	223	201	273	211	245	1,376
자비유학	45	31	53	43	58	36	266
파견학생	401	341	373	342	342	351	2,150
총합계	669	595	627	658	611	632	3,792

출처 : 해당 대학 국제교류팀

A대학교의 Outbound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세부 유형은 크게 교



환학생, 7+1과건학생, 자비유학생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환학생은 A대학과 해외 자매대학간의 상호협정에 따라 A대학 학생과 자매대학 학생을 일정기간 동안 교환하여 수학하게 한 후 해당 기간 동안 상대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소속 대학에서 인정하는 제도이다. 교환학생의 경우 파견 대학별로 요구하는 어학성적 및 성적 기준이 요구되며, 선발시 해외 수학 기간 동안 등록금은 A대학교에 납부하고 파견대학교의 등록금은 면제받는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국가로 수학을 희망할 경우 유리한 제도이다. 선발 시기는 파견 지역별, 각 학과별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1개학기 이전에 선발이 완료된다.

7+1과건학생 제도는 학생들이 8학기의 재학기간 중 최소 1개 학기를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게 함으로써 재학생들의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A대학은 연간 800여명의 7+1과건학생을 선발하여 해외 대학에 파견시키고 있다. 7+1과건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A대학의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전액 또는 반액 감면되며, 선발된 학생은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 7+1과건학생 프로그램 안에서도 선발 유형이 여러가지로 나뉘는데 크게는 학교에서 선발하는 영미권 파견학생과 학과에서 선발하는 모든 언어권 파견학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교 선발자는 영미권 국가의 지정된 대학으로 파견되며 학과 선발자는 각 학과별 운영 현황에 따라 학과에서 지정한 대학이나 학생이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대학으로 파견되어 수학한다. 선발 시기는 학교선발의 경우 1월 또는 7월 중순, 학과 선발의 경우 3월 또는 9월 초순으로 해외 수학 학기보다 한 학기 이전에 선발이 완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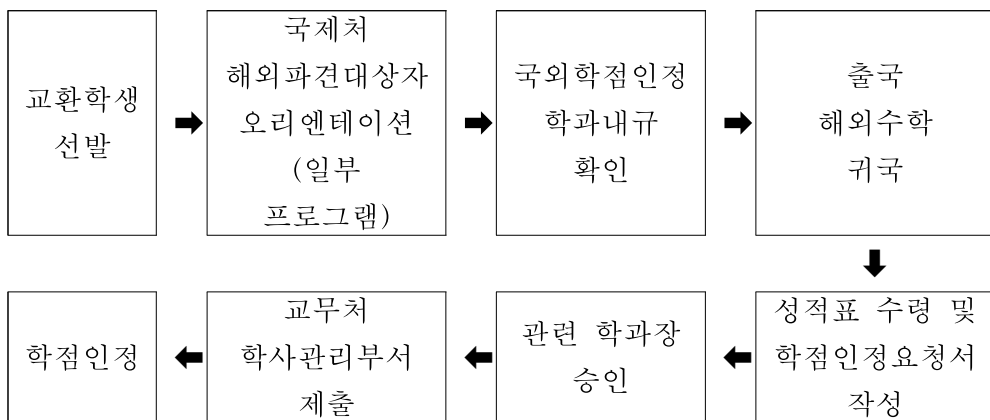
자비유학제도는 정규 학기동안 외국 대학에서 수학한 후 해당 기간의 수학학기과 취득 학점을 A대학에서 인정받는 제도로 자비유학생의 경우 외국대학과 A대학에 모두 등록금을 납부한다. 교환학생이나 7+1과건학생과 비교하여 선발 기준에 성적이나 학점 요건이 반영되지 않으며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4년제 대학교면 어느 대학이든 수학 및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자비유학생은 교환학생이나 파견학생과 비교하여 신청 기간이 여유가 있어서(예: 1학기 해외 수학시 11월~12월 말까지 가능) 뒤늦게 해외 수학을 결정하였으나 학점 인정을 희망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나. 교환학생 학점 인정 현황



1) 해외취득학점 인정 절차 및 운영현황

A대학의 해외취득학점 인정 절차는 해당 대학의 ‘국제학술교류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수학기간 종료 후 개별 학과의 내규에 기초한 학과장 심사, 국제교류처장의 확인을 거쳐 교무처장이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15년을 기점으로 확립된 방식으로, 그 이전에는 모든 학과가 내규를 마련해두지 않고 학과장의 재량으로 학점 인정을 심사하였으며, 학생들이 학점 인정받기로 하였던 과목을 해외에서 수강하고 난 이후 사전 승인내역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종종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해외취득학점 인정 심사를 위하여 현재는 모든 학과가 ‘국외교류학점인정 내규’를 작성하여 국제교류처에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로 선발된 학생은 출국 이전 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점 인정에 대한 학과의 내규를 확인하고 해외 수강 과목을 선정하며, 출국하여 해외에서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귀국 시 구비서류와 함께 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과의 심사를 받은 뒤 교무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학점 인정을 받는다(아래 그림 III-1 참조).



<그림 III-1> A대학 해외취득학점 인정 절차

2) 해외취득학점 인정 기준



A대학교의 해외 취득 학점 인정은 학칙에 따라 해외 취득 학점은 학기당 최대 17~18학점 이내, 재학중 국내교류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하며 학점 인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외 대학의 학부수업 또는 대학 부속 어학연수기관의 과정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과별 상황에 따라 그 외의 기관에서 연수한 경우도 학점 인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A대학교의 학과별 국외 학점 인정 내규를 비교한 예시는 <표III-2>와 같다. 각 학과의 내규는 국제교류처에서 제시한 기본 양식에 따라 학과에서 정하며, 일부 학과의 경우 기본 양식보다 자세하고 상세하게 또는 간소화하여 작성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학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해외 학점 인정 내규를 안내하며 학과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해외 교과목 리스트를 예시로 첨부하여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표III-2> A대학교 학과별 국외학점 인정 관련 내규 비교 예시

<○○학과 내규>

- 인정 학점 기준 (본교와 학점기준 상이한 경우)
 - 수업시수 : 수업시간 16시간당 1학점 환산 인정. 초과시간 내림
 - 일부 국가에서 총 시수에 포함된 과제 수행시간을 수업시수에 포함하지 않음.
- 과목별 인정 학점 수 : 과목 수강시간 상관 없이 과목당 최대 3학점
- 성적 :
 - 15-2학기 이후 P/F 인정

<△△학과 내규>

- 대학부설어학원 어학수업 전공 인정 가능
- 해외 이수한 모든 과목은 귀국후 학과 자체 학점인정시험 결과에 따라 학점 부여
- 인정 학점 기준
 - 수업시수 16시간당 1학점 환산 인정. 초과시간 내림
 - 일부 국가에서 총 시수에 포함된 과제 수행시간을 수업시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성적
 - 17-2학기 이후 P/F (전공: 학점인정시험 70점 이상/ 자선: 현자 실



습 결과보고서 5-6장 평가)

- 16-2학기 ~ 17-1학기 : 학점인정시험에 따라 등급 인정(ABC)

<□□학과 내규>

- 대학부설어학원 어학수업 전공인정 불가
- 특정 대학의 특정 과목은 ESL 강좌이나 예외적으로 전공학점 인정 가능
- 인정 학점 기준 (본교와 학점기준 상이한 경우)
 - 수업시수 : 수업시간 16시간당 1학점 환산 인정. 초과시간 내림
 - 일부 국가에서 총 시수에 포함된 과제 수행시간을 수업시수에 포함하지 않음.
- 유럽대학 ECTS학점도 모두 수업시간 기준으로 16시간당 1학점 환산
- UC Davis는 1시간=50분 강의이므로 50분 기준으로 학점 계산
- 일부 유럽대학(노르웨이, 네덜란드)의 경우 중간, 기말고사가 학기 주수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 13-14주차를 16주차로 간주하고 주당 강의시간 기준으로 학점 계산
- 성적
 - 17-2학기 이후 교류대학 성적(ABC) 그대로 인정
 - 17-1학기 이전 교류대학 성적 P/F
 - 15-2학기 이후 교류대학 외 타대학 성적 P/F
 - ABCD 학점체계 아닌 경우 백분율 적용 또는 별도 학과 기준에 따라 평가

2. 연구 대상

해외 수학 경험의 문제점 및 운영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 37문항의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설문지 문항 구성을 위하여 해외 수학 참여 학생과 A대학의 국제교류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을 하고 문항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설문지는 A대학교의 2016년 1학기부터 2017년 2학기까지 최근 2년간 교환학생과 7+1파견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해당 학기로 학점 인정을 완료한 학생 총 2,104명을 대상으로 약 10일 간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메일 설문은 A대학교 국제교류팀의 협조를 통하여 배부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해외 교류 프로그램 선발 시점부터 귀국 후 사례 대학에서 다시 수업을 수강하는 학기까지의 경험을 대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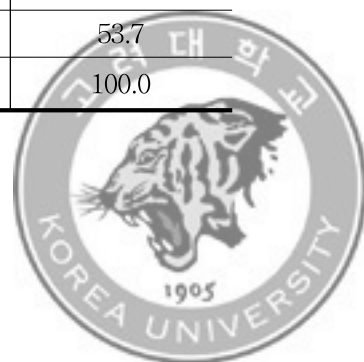
하고 있으므로 해외 체류 경험에 대한 기억이 오래되지 않은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최근 2년간의 프로그램 참여자로 대상을 제한하였고 사례 대학 해외 수학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존 만족도 조사에서도 언급된 학점 인정과 관련한 경험을 묻기 위하여 그 중에서도 해외 취득 학점 인정을 완료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104명 중 설문 응답 인원은 236명(회수율 11.21%)이며, 그 중 응답 비율이 소수인 자비유학생 프로그램 참여인원 9명과 개인 배경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22명을 제외한 203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설문지 배부 및 회수 결과는 <표III-3>과 같으며 배경 변인별 응답자 분포는 <표 III-4>와 같다.

<표III-3> 설문지 배부 및 회수 결과

집단	배부한 설문지 수	회수한 설문지 수	회수율(%)
최근 2년 A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국외학점인정 완료자	2,104	236	11.21%

<표III-4> 배경변인별 응답자 분포

항목		빈도	백분율(%)
캠퍼스	1캠퍼스	111	54.7
	2캠퍼스	92	45.3
제1전공	어문계열	152	74.9
	비어문계열	51	25.1
해외 수학 국가	영미권	34	16.7
	비영미권	169	83.3
참여 프로그램	교환학생	94	46.3
	7+1 파견학생	109	53.7
합계		203	100.0



본 연구의 설문 응답률은 11.21%로 설문 대상 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해외 교환학생 참여 경험의 특성상 수학하는 국가나 대학, 그리고 학생의 소속 학과에 따라 경험의 양상이 크게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설문 조사 종료 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설문 응답자 중 총 8명의 학생이다. 면담 대상자는 설문 조사에서 추가 면담 희망으로 응답한 대상자 중 참여 프로그램 유형, 전공 계열, 캠퍼스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그 중 5명은 대면 면담으로, 3명은 전화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대상자의 특성은 <표III-5>와 같다. 자비유학생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설문응답 조사 결과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으나 주요 운영 유형인 교환학생 및 파견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과의 경험상 차이 유무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면담 대상에 포함하였다. 면담 자료는 설문조사의 개방형 응답 자료와 함께 연구 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추가로, 학생 면담 자료 중 일부 내용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A대학의 교무처 소속 학점인정업무 담당자와의 비공식 면담에서 확인한 내용을 활용하였다.

<표III-5> 면담 대상자의 특성

면담대상자	성별	캠퍼스	1전공계열	참여프로그램	면담방식
A	여	제1캠퍼스	비어문	교환학생	그룹면담 2
B	여	제1캠퍼스	어문	자비유학생	그룹면담 1
C	여	제1캠퍼스	어문	7+1파견학생	전화
D	여	제2캠퍼스	비어문	7+1파견학생	전화
E	여	제2캠퍼스	비어문	교환학생	전화
F	여	제1캠퍼스	비어문	교환학생	그룹면담2
G	여	제1캠퍼스	비어문	교환학생	그룹면담2
H	남	제1캠퍼스	어문	자비유학생	그룹면담1

3. 연구자료 수집방법

가. 설문지 구성



대학생의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 내용은 <표III-6>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III-6> 설문지 구성

참여 시기 별		문제구분	설문내용	문 항수
출국 전	참여동기	동기	참여 결정 요소	7
		동기	국가 및 대학 선정 기준	
	학업준비	실태	수학허가 조력자	
		실태	수학 준비 과정 어려움	
	생활준비	실태	외국생활 준비 조력자	
		실태	외국생활 준비 과정 어려움	
		개선방안	학업/생활 준비 지원 방안	
해외 체류 중	생활적응 사회교류	실태	낯선 환경 적응, 수강과목 결정	8
		실태	현지민 교류정도, 현지 대학 프로그램	
		실태	생활 및 문화 적응 과정 어려움	
		개선방안	외국 환경 적응 지원 방안	
	학습	실태	외국어능력, 전문용어/지식, 교수학습방식	
		실태	교과과정, 수업내용 질, 강의계획서, 유학생 배려, 학사안내 서비스, 강좌당 수강인원	
		개선방안	학습 성과 향상 위한 지원방안	
귀국 후	학점인정	실태	서류발급 및 절차 진행 신속성	8
		실태	학과 심사, 절차 전반	
		개선방안	규정 및 절차 진행 개선방안	
	재적응	실태	귀국 후 대학 생활 적응	
		개선방안	귀국후 적응도 향상 지원 방안	
만족도 및 제안사항			해외수학경험 추천여부 및 사유	3
			해외 수학 프로그램 개선/제안 사항, 설문 관련 의견	



개인배경	성별, 나이, 전공, 프로그램 종류, 수학 대학, 수학 기간, 학년	11
------	--	----

설문지는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A대학 학생들의 해외 수학 경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출국 이전, 해외 체류중, 귀국 후로 나누어 해외 수학 경험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문항을 구성하고 마지막에 만족도 및 프로그램 개선 의견에 대한 의견을 개방형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기별 해외 수학 경험은 다시 그 안에서 학업과 생활 측면의 문제점을 비롯한 실태와 개선사항으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일부 도움 정도 등을 세부적으로 측정하는 문항의 선택지는 전혀 도움되지 않음, 약간 도움이 됨, 꽤 도움됨, 매우 도움됨과 같이 4점 척도로 보기를 구성하였다. 기타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경우 선행연구 및 사전 면담 제시된 내용을 재구성하여 선택형 답안으로 측정하였으며, 문항에 따라 기타를 선택지에 넣거나 선택형답안 외에 추가로 기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보기로 제시된 항목 외에도 응답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응답자 개인 배경으로 성별, 나이, 전공, 참여 프로그램 종류, 수학 대학, 수학 기간, 학년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나. 면담

면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과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 결과 해석을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다. 면담 대상자는 총 8명이며 질문은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 면담 중 추가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사례 대학 학생의 해외 수학 경험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권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파견 지역에 따른 변수와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유형에 따른 변수 등을 각 개인별 맥락을 고려하여 파악하고자 정형화된 질문을 제시하기보다 면담 진행 상황에 따라 즉석에서 추가하여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질문의 주요 내용은 <표III-7>과 같다.

<표III-7> 면담의 주요 내용

공통	사례 대학의 해외수학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	----------------------------------



	<p>지?</p> <p>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는지?</p> <p>해외 수학 준비, 현지체류, 귀국 이후 기간 중 언제 어떤 면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꼈는지?</p> <p>학점 인정 가능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였는지?</p> <p>학점 인정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는지?</p> <p>사례 대학의 강점을 살리고 학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외 수학 프로그램에서 어떤 점이 가장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p>
개별	<p>프로그램 참여 및 국가, 대학 선택 과정은?</p> <p>해외 대학 선택의 폭이 있었는지?</p> <p>학과에서 해외 수학을 장려하는지?</p> <p>학과나 국제교류팀에서 수학 허가를 어느 정도 도와주었는지?</p> <p>해외 수학 예정자를 위한 학과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는지?</p> <p>숙소는 어떻게 마련했는지?</p> <p>해외에 있는 동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다면?</p> <p>해외 대학에서 만난 다른 한국 대학 학생들과의 차이점을 느낀 부분이 있다면?</p> <p>학점 인정 관련하여 사전에 안내받거나 내규에서 확인한 부분과 실제로 다르게 적용된 점이 있었는지?</p> <p>해외 수학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전공 학습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는지?</p> <p>귀국 보고서에서 어떤 항목을 가장 중점 깊게 봤는지?</p> <p>귀국 이후 경험담을 공유할 자리가 있었는지?</p>

4. 연구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한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양적 자료는 Windows SPSS 25.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결정 시 요인별 고려 요소, 해외 수학 기



간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정도, 해외 대학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등에 대한 문항에서 배경 변인에 따른 응답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그 외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시기별 경험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문항에서 배경 변인에 따른 응답 결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가 양적 연구로서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교환학생 경험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의 개방형 응답 및 추후 시행된 개인 면담 자료를 활용하였다. 개방형 응답은 일부 문항별로 제시된 기타 의견 작성 내역을, 면담 자료는 설문 종료 후 시행된 그룹 또는 개별 전화 면담 시 연구자가 작성한 필드 노트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추출하였고, 특히 연구 문제에 대하여 수학 국가나 소속 전공별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동기, 국가 및 대학 선택 고려 요인

가.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결정 동기

사례 대학 학생들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결정 시 요인별 고려 정도의 차이를 설문조사한 결과는 <표 VI-1>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결정 시 새로운 문화 체험과 외국어 능력 향상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당 설문과 관련한 개방형 답변에서 언급된 기타 고려 요인으로는 세계관 및 가치관의 확장, 취업 및 진로에 대한 도움, 어학과 학점 취득 병행 가능한 이점, 방학 중 여행,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등이 있었다.

<표 IV-1>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시 요인별 고려 정도

요인명		N	M	SD
참여 결정	외국어능력향상	203	3.63	0.603
	전공 학습 심화	203	3.01	0.826
	새로운 교육과정 체험	203	3.26	0.733
	새로운 문화 체험	203	3.72	0.520

제시된 각 요인에 대한 고려 정도가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어 능력 향상 고려 정도

사례대학 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외국어 능력 향상 고려 정도에 대한 개인 변인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VI-2>와 같이 나타났다. 검정 결과, 참여 프로그램의 세부 유형에 따라서만 ‘7+1 파견학생’은 평균 점수 3.76, ‘교환학생’은 3.4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3.552$,



p<0.001). ‘7+1과건학생’ 프로그램의 경우 주로 본인의 전공 학과에서 선발하여 해외 대학에 파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통상 대학 차원에서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자매 대학으로 파견되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에서 학생들이 전공 외국어 능력 향상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2> 배경변인별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결정에 있어 ‘외국어 능력 향상’을 고려한 정도

구분		N	M	SD	t
계		203	3.63	0.603	
캠퍼스	제1캠퍼스	111	3.59	0.610	-1.038
	제2캠퍼스	92	3.67	0.595	
제1전공	어문	152	3.64	0.593	0.510
	비어문	51	3.59	0.638	
해외 수학 국가	영미권	34	3.50	0.564	-1.333
	비영미권	169	3.65	0.609	
프로그램 세부유형	교환학생	94	3.47	0.714	-3.552***
	7+1 파견학생	109	3.76	0.449	

*p<.05, ** p<.01, *** p<.001

2) 전공 학습 역량 심화 고려 정도

사례대학 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전공 학습 역량 심화에 대한 고려 정도에 개인 변인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VI-3>과 같다. 검정 결과, 제1전공계열(t=3.522, p<0.001)과 해외수학국가(t=-2.142,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문계열 학생은 평균 3.13으로, 비어문계열 학생은 평균 2.67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외국어능력 향상 효과가 어문계열은 전공 학습 역량 심화와 직결되는 점에서 상식적인 결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비어문계열인 인문사회나 이공학계열 학생은 상대적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공



학습을 심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해외수학국가별로는 영미권 국가 수학자는 평균 2.74, 비영미권 국가 수학자는 평균 3.07이 차이를 보였으며, 영미권 국가에서 수학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발달한 국가들의 문화나 교육 인프라 등에 대한 경험을 더욱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비영미권 국가 수학자는 해당 국가의 외국어와 관련한 전공 학습에 중점을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3> 배경변인별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결정에 있어 ‘전공 학습 역량 심화’를 고려한 정도

구분		N	M	SD	t
계		203	3.01	0.826	
캠퍼스	제1캠퍼스	111	2.93	0.817	-1.557
	제2캠퍼스	92	3.11	0.831	
제1전공	어문	152	3.13	0.792	3.522***
	비어문	51	2.67	0.841	
해외 수학 국가	영미권	34	2.74	0.994	-2.142*
	비영미권	169	3.07	0.780	
프로그램 세부유형	교환학생	94	2.89	0.836	-1.872
	7+1 파견학생	109	3.11	0.809	

* $p < .05$, ** $p < .01$, *** $p < .001$

3) 새로운 교육 과정 체험

사례대학 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새로운 교육 과정 체험에 대한 고려 정도에 개인 변인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VI-4>와 같다. 검정 결과, 제1전공 계열($t = -2.442$, $p < 0.05$)과 해외 수학 국가($t = 2.409$, $p < 0.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문계열 전공자의 경우 새로운 교육과정 체험 고려도에 대한 평균은 3.18이었고 비어문계열 전공자는 평균 3.47로 상대적으로 고려도가 높게 나타났다. 해외수학국가에 따라서는 영미권 국가 수학자가 평균 3.53, 비영미권 국가 수학자는 평



균 3.20으로 영미권 국가에서 수학하는 경우 새로운 교육과정 체험에 더욱 의미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4> 배경변인별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결정에 있어 ‘새로운 교육 과정 체험’을 고려한 정도

구분		N	M	SD	t
계		203	3.26	0.733	
캠퍼스	제1캠퍼스	111	3.24	0.729	-0.275
	제2캠퍼스	92	3.27	0.743	
제1전공	어문	152	3.18	0.776	-2.442*
	비어문	51	3.47	0.542	
해외 수학 국가	영미권	34	3.53	0.563	2.409*
	비영미권	169	3.20	0.753	
프로그램 세부유형	교환학생	94	3.31	0.762	0.944
	7+1 파견학생	109	3.21	0.708	

*p<.05, ** p<.01, *** p<.001

4) 새로운 문화체험

사례대학 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새로운 문화 체험에 대한 고려 정도에 개인 변인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VI-5>와 같다. 검정 결과, 어문계열 전공자의 새로운 문화체험 고려도는 평균 3.67, 비어문계열 전공자의 고려도는 평균 3.88로 제1전공계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547$, $p<0.05$). 어문계열 전공자와 비어문계열 전공자 모두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시 요인별 고려 정도에 대한 평균 점수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새로운 문화체험’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 점수 자체에서 비어문계열 학생들이 더욱 높은 점수를 준 점에서 차이를 보인 점이 흥미롭다 할 수 있다. 이는 어문계열 학생들의 경우 새로운 문화체험(평균 3.67)과 외국어 능력 향상(평균 3.64) 및 기타 요인을 보다 고르게 고려하는 반면 비어문계열 학생의 경우 새로운 문화체험(평균 3.88)에 외국어 능력 향상(평균 3.59) 및 기타 요인 보다



많은 중점을 두고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I-5> 배경변인별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결정에 있어 ‘새로운 문화 체험’을 고려한 정도

구분		N	M	SD	t
계		203	3.72	0.520	
캠퍼스	제1캠퍼스	111	3.73	0.555	0.168
	제2캠퍼스	92	3.72	0.476	
제1전공	어문	152	3.67	0.561	-2.547*
	비어문	51	3.88	0.325	
해외 수학 국가	영미권	34	3.79	0.410	0.860
	비영미권	169	3.71	0.539	
프로그램 세부유형	교환학생	94	3.74	0.527	0.522
	7+1 파견학생	109	3.71	0.515	

*p<.05, ** p<.01, *** p<.001

나. 참여 국가 선택 요소

사례 대학 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시 국가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표 VI-6>과 같다. 총 응답인원 203명 중 138명(68.0%)이 해당 국가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25명(12.3%)은 기타 요소, 21명(10.3%)은 비용, 11명(5.4%)은 지인의 추천, 8명(3.9%)은 프로그램 선발 인원을 고려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배경 변인별 고려 요인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기타 고려 요인에 대한 개방형 답변에서는 전공 언어와의 연관성, 안전성(치안), 위치, 한국 학생이 적은 곳, 졸업 후 취업 희망 국가, 생활 환경 등이 제시되었다.

설문 조사 응답자 중 제1전공이 어문계열 학생이 약 75%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요소보다 수학 대상 국가의 언어와 문화권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이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다.



<표 VI-6> 배경변인별 참여 국가 선택에 있어 고려한 요소

단위: 명(%)

배경변인 \ 응답		① 선발 인원	② 언어 문화 관심도	③ 지인 추천	④ 비용	⑤ 기타	합계	χ^2
합계		8 (3.9)	138 (68.0)	11 (5.4)	21 (10.3)	25 (12.3)	203 (100.0)	
캠퍼스	1캠퍼스	7 (3.4)	74 (36.5)	5 (2.5)	10 (4.9)	15 (7.4)	111 (54.7)	4.625
	2캠퍼스	1 (0.5)	64 (31.5)	6 (3.0)	11 (5.4)	10 (4.9)	92 (45.3)	
제1 전공	어문	5 (2.5)	103 (50.7)	8 (3.9)	14 (6.9)	22 (10.8)	152 (74.9)	3.724
	비어문	3 (1.5)	35 (17.2)	3 (1.5)	7 (3.4)	3 (1.5)	51 (25.1)	
해외 수학 국가	영미권	0 (0.0)	25 (12.3)	3 (1.5)	3 (1.5)	3 (1.5)	34 (16.7)	-
	비영미권	8 (3.9)	113 (55.7)	8 (3.9)	18 (8.9)	22 (10.8)	169 (83.3)	
세부 유형	교환학생	5 (2.5)	60 (29.6)	3 (1.5)	13 (6.4)	13 (6.4)	94 (46.3)	5.271
	7+1	3	78	8	8	12	109	
	파견학생	(1.5)	(38.4)	(3.9)	(3.9)	(5.9)	(53.7)	

*p<.05, ** p<.01, *** p<.001

* 주 : ① 프로그램 선발 인원

② 해당 국가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한 관심도

③ 지인의 추천 (친구, 교수님, 가족 등)

④ 비용

⑤ 기타(개방형 응답)

다. 해외 대학 선택 요소

사례대학 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시 수학 대학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표 VI-7>과 같다. 응답 비율에 따른 고려 요소는 인지도 및 평판도(28.1%), 개설 수업 학점 인정 여부(23.6%), 기타(23.2%), 비용(12.8%), 교육과정의 질(12.3%)의 순서로 나타났다. 배경 변인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시행한 결과 제1전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chi^2=11.554$, $p<0.05$). 어문계열 전공자의 경우 총 152명(74.9%) 중 42명(20.7%)이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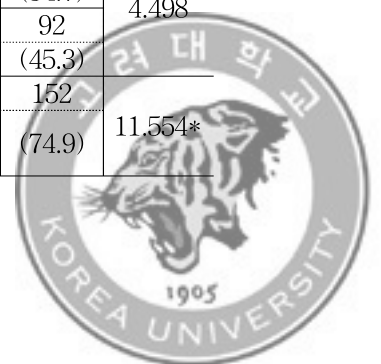
지도 및 평판도'를 가장 많이 고려하였고, 31명(15.3%)이 '학점인정여부'를 가장 많이 고려한 반면, 비어문제열 전공자는 총 51명(25.1%) 중 17명(8.4%)이 '학점인정여부'를 가장 많이 고려하였고 15명(7.4%)이 '인지도 및 평판도'를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개방형 응답에서는 '치안, 한국인이 적은 곳, 기숙사를 포함한 생활환경'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국가 선택 시 고려하는 요소와 중복되는 항목들로 수학 국가 선택과 대학 선택의 과정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외에 대학 선택 시 고려하는 요소들로 위치(대도시나 소도시 선호도), 외국어 향상 적합성, 기존 수학자의 만족도, 교수님 또는 지인 추천 등이 있었다. 또한 학과에 따라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유일하거나 소수인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특수언어권의 작은 국가로 학생을 파견하는 학과에서만 아니라 비교적 큰 국가로 학생을 파견하는 학과의 경우에도 해당되었다. 특히 개방형 응답에서 대학 선택 폭의 제한을 언급한 응답자는 사례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별도의 문항에서도 학교나 교과목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좋겠다고 기술하였다. 해외 수학 대학의 선택 제한 사유는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질 보장이나 학점 인정의 용이성, 교류 협정 체결 현황 등에 기인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학과에 따라 맥락이 다를 수 있어 관련 학과장이나 교수진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7> 배경변인별 해외 대학 선택에 있어 고려한 요소

단위: 명(%)

응답		① 인지도 평판도	② 교육 과정	③ 학점 인정	④ 비용	⑤ 기타	합계	χ^2
배경변인								
합계		57 (28.1)	25 (12.3)	48 (23.6)	26 (12.8)	47 (23.2)	203 (100.0)	
캠퍼스	1캠퍼스	33 (16.3)	10 (4.9)	28 (13.8)	17 (8.4)	23 (11.3)	111 (54.7)	4.498
	2캠퍼스	24 (11.8)	15 (7.4)	20 (9.9)	9 (4.4)	24 (11.8)	92 (45.3)	
제1 전공	어문	42 (20.7)	21 (10.3)	31 (15.3)	16 (7.9)	42 (20.7)	152 (74.9)	11.554*



	비어문	15 (7.4)	4 (2.0)	17 (8.4)	10 (4.9)	5 (2.5)	51 (25.1)	
해외 수학 국가	영미권	5 (2.5)	5 (2.5)	7 (3.4)	7 (3.4)	10 (4.9)	34 (16.7)	5.573
	비영미권	52 (25.6)	20 (9.9)	41 (20.2)	19 (9.4)	37 (18.2)	169 (83.3)	
세부 유형	교환학생	23 (11.3)	10 (4.9)	26 (12.8)	12 (5.9)	23 (11.3)	94 (46.3)	2.537
	7+1	34 (16.7)	15 (7.4)	22 (10.8)	14 (6.9)	24 (11.8)	109 (53.7)	
	파견학생							

*p<.05, ** p<.01, *** p<.001

주 : ① 인지도 및 평판도

② 교육과정의 질

③ 개설 수업 학점 인정 여부

④ 비용

⑤ 기타(개방형 응답)

2. 교환학생 프로그램 경험 실태와 문제점

가. 교환학생 프로그램 준비와 관련한 조력자

사려대학 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위하여 사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력자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도는 <표 VI-8>과 같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특히 출국 이전 외국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70%이상의 학생이 본인 스스로 준비했다고 답변하여 낯선 환경으로의 이동과 관련한 학생의 부담감을 예상할 수 있었다.

<표 VI-8> 출국 이전 교환학생 프로그램 준비와 관련한 조력자

구분	도움 받은 정도
수학 허가	본인(35.0%) > 소속학과(24.6%) > 국제교류팀(33.0%) > 사설유학원(7.4%)
외국 생활 준비	본인(71.9%) > 소속학과(16.7%) > 사설유학원 (7.9%) > 국제교류팀(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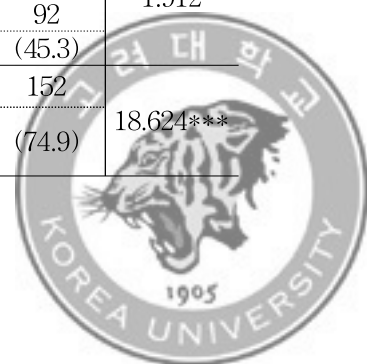
1) 출국 전 해외 수학 허가 과정

출국 전 수학 허가 과정에서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표 VI-9>와 같다. 총 응답 인원 203명 중 71명(35.0%)이 본인 스스로, 67명(33.0%)이 사례대학 학과 구성원, 50명(24.6%)이 사례대학 국제교류팀, 15명(7.4%)이 사설유학원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배경 변인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시행한 결과 제1전공($\chi^2=18.624$, $p=0.001$), 해외수학국가($\chi^2=21.62$, $p=0.001$)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제1전공에 따른 차이의 경우 어문계열 학생은 총 152명(74.9%) 중 가장 많은 58명(28.6%)이 ‘본인 스스로’로 응답한 반면 비어문계열 학생은 총 51명(25.1%) 중 가장 많은 24명(11.8%)이 ‘사례대학 국제교류팀’으로 응답하였다. 해외 수학 국가에 따른 차이로는 비영미권 국가 수학자 총 169명(83.3%) 중 가장 많은 64명(31.5%)이 ‘사례대학 학과 구성원’으로 응답한 반면 영미권 국가 수학자 총 34명(16.7%) 중 가장 많은 18명(8.0%)이 ‘사례대학 국제교류팀’으로 응답하였다. 영미권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국제교류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나 비영미권 대학의 경우 중국권을 제외하고는 국제교류팀 차원의 오리엔테이션이 거의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국가나 지역별 특성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는 각 전공 언어학과의 구성원으로부터 가장 많이 습득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VI-9> 배경변인별 수학 허가 과정의 조력자

단위: 명(%)

배경변인 \ 응답		본인 스스로	사례대학 국제교류팀	사례대학 학과 구성원	사설 유학원	합계	χ^2
합계		71 (35.0)	50 (24.6)	67 (33.0)	15 (7.4)	203 (100.0)	
캠퍼스	1캠퍼스	42 (20.7)	27 (13.3)	36 (17.7)	6 (3.0)	111 (54.7)	1.912
	2캠퍼스	29 (14.3)	23 (11.3)	31 (15.3)	9 (4.4)	92 (45.3)	
제1전공	어문	58 (28.6)	26 (12.8)	55 (27.1)	13 (6.4)	152 (74.9)	18.624***



	비어문	13 (6.4)	24 (11.8)	12 (5.9)	2 (1.0)	51 (25.1)	
해외 수학 국가	영미권	12 (5.9)	18 (8.9)	3 (1.5)	1 (0.5)	34 (16.7)	21.62***
	비영미권	59 (29.1)	32 (15.8)	64 (31.5)	14 (6.9)	169 (83.3)	
세부 유형	교환학생	39 (19.2)	32 (15.8)	21 (10.3)	2 (1.0)	94 (46.3)	21.012
	7+1	32 (15.8)	18 (8.9)	46 (22.7)	13 (6.4)	109 (53.7)	
	파견학생						

*p<.05, ** p<.01, *** p<.001

현재 사례 대학의 학교 차원에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은 국제교류팀 주관의 ‘교환학생’ 및 ‘7+1 파견학생’ 프로그램 중 영미권과 중국 대학 선발자만을 대상으로 시행중이며, 해외 대학 지원 서류 및 학점 인정 등에 대한 절차 안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과에서 선발을 주관하는 교환학생이나 7+1 파견학생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학과의 운영 방식에 따라 해외 대학 지원 절차 안내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에 개별적으로 대학을 선택하는 트랙의 7+1 파견학생이나 자비유학생은 본인 스스로 해외 대학에 절차를 문의하고 진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로 설문지의 개방형 응답에서 일부 학생은 경우 수학 허가 과정에서 학교나 학과의 도움을 받아 큰 문제가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일부 학생은 학교나 국제교류팀의 도움 없이 혼자 수학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하거나, 이러한 부담감을 피하기 위하여 ‘7+1 파견학생’ 대신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한 경우, 또는 사설 유학원의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출국 전에는 본교에서의 사전 지시, 주의사항 등이 없고 합격 여부만 밝혀주기 때문에 모든걸 경험자를 통해 배우고 준비해야 하는 점이 어려웠음. 만약 마땅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매년 국내외적으로 변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교내지침 혹은 각 해당국가에 해당하는 과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메뉴얼이 존재하거나 코트라 인터넷과 같은 사전 OT를 통해 교육이 있었으면 함.

원래는 파견학생을 준비하였으나 수학허가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교환학생으로 신청 변경 하게 됨.

해외 학교에 지원서를 보내고 승인을 받는 과정,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져서 따로 비용을 더 내고 유학원에 문의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출국 전 외국 생활 준비 과정

출국 전 외국 생활 과정에서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표 VI-10>과 같다. 총 응답 인원 203명 중 146명(71.9%)이 본인 스스로, 34명(16.7%)이 사례대학 학과 구성원, 16명(7.9%)이 사설유학원, 7명(3.4%)이 사례대학 국제교류팀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 차이가 있었는지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참여프로그램 세부 유형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chi^2=17.195$, $p=0.001$).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자 총 94명(46.3%)중 가장 많은 77명(37.9%)이 ‘본인 스스로’로, 이어 11명(5.4%)이 ‘사례대학 학과 구성원’으로 응답하였고, ‘7+1파견학생’ 프로그램 참여자 총 109명(53.7%) 중 69명(34%)가 ‘본인 스스로’로, 이어 23명(11.3%)가 ‘사례대학 학과 구성원’으로 응답하여 ‘7+1 파견학생’의 경우 학과 구성원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은 경우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환학생’은 단 1명(0.5%)만이 ‘사설 유학원’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7+1 파견학생’은 15명(7.4%)이 ‘사설유학원’으로 응답하였다.

<표 VI-10> 배경변인별 외국생활 준비 과정의 조력자

		단위: 명(%)				
배경변인	응답	본인 스스로	사례대 국제 교류팀	사례대 학과 구성원	사설 유학원	합계
						χ^2
합계		146 (71.9)	7 (3.4)	34 (16.7)	16 (7.9)	203 (100.0)
캠퍼스	1캠퍼스	84 (41.4)	3 (1.5)	16 (7.9)	8 (3.9)	111 (54.7)
	2캠퍼스	62 (30.5)	4 (2.0)	18 (8.9)	8 (3.9)	92 (45.3)

1.813



제1 전공	어문	107 (52.7)	4 (2.0)	28 (13.8)	13 (6.4)	152 (74.9)	2.722
	비어문	39 (19.2)	3 (1.5)	6 (3.0)	3 (1.5)	51 (25.1)	
해외 수학 국가	영미권	27 (13.3)	5 (2.5)	2 (1.0)	0 (0)	34 (16.7)	-
	비영미권	119 (58.6)	2 (1.0)	32 (15.8)	16 (7.9)	169 (83.3)	
세부 유형	교환학생	77 (37.9)	5 (2.5)	11 (5.4)	1 (0.5)	94 (46.3)	17.195***
	7+1	69	2	23	15	109	
	파견학생	(34.0)	(1.0)	(11.3)	(7.4)	(53.7)	

*p<.05, ** p<.01, *** p<.001

외국생활 준비의 경우 사례대학 내에서 대학 차원이나 학과 차원에서 생활 및 문화적 적응을 위한 공식 오리엔테이션이나 별도 안내 절차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으며 학생들이 비자 발급, 숙소 지원 및 마련 등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산발적으로 수집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개방형 응답을 통하여 설문제 제시된 조력자 유형 외에도 사례대학 학생들은 기존 수학경험자, 해외 대학의 국제교류팀 담당자, 함께 해외 수학을 준비한 학생들, 현지에 있었던 친구들, 인터넷 블로그, 학교 홈페이지의 귀국보고서의 도움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준비 과정에 대한 학과나 학교의 매뉴얼 또는 도움 부재에 대한 불만을 언급하거나, ‘학교에서 교류는 맺어 놓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방임주의 같았다’고 느끼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어문학 이중전공자로서 특히 외국생활 준비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관찰되었다. 아래의 면담자 C학생은 어문학을 이중전공으로 이수하며 이중전공 학과에서 지정한 대학으로 파견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이중전공생으로서 평소 해당 학과의 1전공자들과 교류가 적고 학과에서 선발하는 프로그램의 세부 정보에 익숙하지 않아 프로그램 선발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이다.

원래 OO과는 △△대학교로만 7+1파견학생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학과에 그냥 파견학생 지원 기간을 전화로 물어보고 지원했는데 나중에 선발되고 보니까 △△대 파견학생에 선발된 게 아니라 제가 알아서 다른 학교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국제교류팀에 연락해서 물어



보고 도움을 청했더니 괜찮다고 저도 △△대로 갈 수 있다고 중간에 얘기 해주셔서 다행히 잘 해결되긴 했어요. 수학 허가는 학과 조교가 이메일로 서류 뭐 내라고 알려줘서 어렵지 않게 했어요. ... 보통 이중전공 수업 들을 때 그 학과의 1전공생들하고는 따로 듣다 보니까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도 다 이중전공생들이라 이중전공자 중에 파견학생 가는 친구들이랑 같이 준비하고.. 귀국보고서가 있는지도 현지에 가서 들었고. 저의 1전공 학과는 (해외에) 많이 나가지 않다보니까 그런 정보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7+1파견학생 C)

사례 대학의 전공 수업의 경우 제1전공자와 이중전공자가 수강하는 수업을 구분하여 개설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면담자 C학생의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경우 이중전공자는 해당 학과의 1전공자와 교류할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이중전공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해당 언어 구사력이나 관련 문화권에 대한 이해 자체가 1전공자들에 비하여 낮을 수밖에 없는데 기존 수학자와의 비공식적 교류 기회 또한 부족하여 해외 수학 준비 과정에서의 정보 불충분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것이다. 면담자 C가 수학허가 과정이나 외국생활 준비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니었으나 사례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전략 모색 시 특히 비어문계열 전공자의 상황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준비 과정 중 겪은 어려움

1) 수학 준비 과정

사례대학 학생들이 출국 전 해외 수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표 VI-11>과 같다. 총 응답자 203명 중 60명(29.6%)이 해외 대학 개설 과목 정보 탐색이 어려움, 44명(21.7%)이 해외 대학의 수학 허가를 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움, 43명(21.2%)이 해외 대학의 개설 과목 학점인정 여부 확인이 어려움, 36명(17.7%)이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대학이 어디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20명(9.9%)이 기타로 응답하였다. 해외 대학 개설 과목 탐색 어려움을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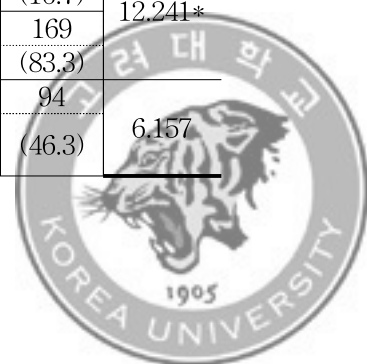


외한 다른 항목들도 비교적 고르게 응답이 분포되어 있어 보기로 제시된 사항들에 대하여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시행한 결과 제1전공($\chi^2=14.835$, $p<0.01$), 해외 수학 국가($\chi^2=12.241$, $p=0.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제1전공이 어문계열인 학생들 총 152명(74.9%) 중 가장 많은 46명(22.7%)이 해외 대학 개설 과목 정보 탐색이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응답한 반면 비어문계열 학생들 총 51명(25.1%) 중 가장 많은 19명(9.4%)은 해외 대학의 개설 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 여부 확인이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수학국가별 차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비영미권 국가 수학자 총 169명(83.3%) 중 가장 많은 53명(26.1%)이 해외 대학 개설 과목 정보 탐색이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응답한 반면 영미권 국가 수학자 총 34명(16.7%) 중 가장 많은 13명(6.4%)은 해외 대학의 개설 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 여부 확인이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VI-11> 배경변인별 출국 전 해외 수학 준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단위: 명(%)

배경변인 \ 응답		①	②	③	④	⑤	합계	χ^2
		대학 선택	절차	과목 탐색	학점 인정 확인	기타		
합계		36 (17.7)	44 (21.7)	60 (29.6)	43 (21.2)	20 (9.9)	203 (100.0)	
캠퍼스	1캠퍼스	17 (8.4)	21 (10.3)	32 (15.8)	30 (14.8)	11 (5.4)	111 (54.7)	5.661
	2캠퍼스	19 (9.4)	23 (11.3)	28 (13.8)	13 (6.4)	9 (4.4)	92 (45.3)	
제1 전공	어문	28 (13.8)	40 (19.7)	46 (22.7)	24 (11.8)	14 (6.9)	152 (74.9)	14.835**
	비어문	8 (3.9)	4 (2.0)	14 (6.9)	19 (9.4)	6 (3.0)	51 (25.1)	
해외 수학 국가	영미권	9 (4.4)	3 (1.5)	7 (3.4)	13 (6.4)	2 (1.0)	34 (16.7)	12.241*
	비영미권	27 (13.3)	41 (20.2)	53 (26.1)	30 (14.8)	18 (8.9)	169 (83.3)	
세부 유형	교환학생	17 (8.4)	16 (7.9)	31 (15.3)	24 (11.8)	6 (3.0)	94 (46.3)	6.157



	7+1	19	28	29	19	14	109	
	과건학생	(9.4)	(13.8)	(14.3)	(9.4)	(6.9)	(53.7)	

*p<.05, ** p<.01, *** p<.001

※ 주 : ①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대학이 어디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② 해외 대학의 수학허가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

③ 해외 대학의 개설 과목 정보 탐색이 어려움

④ 해외 대학의 개설 과목 학점인정 여부 확인이 어려움

⑤ 기타(개방형 응답)

출국 이전 해외 대학의 개설 과목 정보 탐색이 가장 어려웠다는 응답과 관련하여, 사례대학 학생들이 대학 선택을 할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중 하나가 해외 대학 개설 과목의 학점 인정 여부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전 학사정보 파악을 위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개방형 응답을 통하여 해외 수학하는 데 필요한 절차나 요건을 스스로 알아내야 하는 점, 해외 대학과의 연락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학교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점 등에서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로 학생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학인 경우 개강일이나 폐강일과 같은 기본 정보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거나 중국의 경우 대학들이 강의 수강 관련한 절차나 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러한 해외대학의 교과과정 및 학사 정보 확인의 어려움은 해당 국가의 특성상 정보 공개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고 교류학생이 많지 않은 지역이나 대학이어서 관련 정보량이 절대적으로 적거나 또는 특정 대학 자체의 학사정보 공개 수준이 낮아서일 수도 있다. 수학 예정인 대학의 학사정보 파악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외에서 수강할 과목의 학점인정 여부 확인 또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이 수학하였던 국가나 대학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국가나 대학별 특성에 따른 학습 준비과정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어문학 전공자의 비율이 높아 교환학생 경험을 통한 외국어 능력 신장이 전공 학습 역량 강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사례대학의 특성상 교환학생 프로그램 개선 방안 모색 시 학습 준비 과정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2) 외국 생활 준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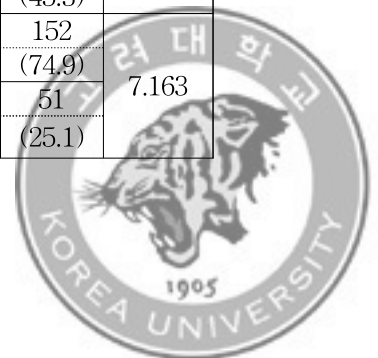
사례대학 학생들이 출국 전 외국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VI-12>와 같다. 총 응답자 203명 중 79명(38.9%)이 실생활 관련 세부 정보(교통, 의료, 통신 등) 사전 습득 한계, 40명(19.7%)이 숙소 지원/마련의 어려움, 39명(19.2%)이 낯선 환경 및 생활 방식 적응에 대한 불안감, 31명(15.2%)이 비자 발급 절차 및 비용, 14명(6.9%)이 기타로 응답하였다. 배경 변인별 차이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개방형 응답으로 접수된 기타 항목으로는 비싼 물가와 생활비,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음 등이 있었다.

앞서 외국 생활 준비와 관련한 조력자의 도움 정도와 관련한 문항에서 본인 스스로 해결하였다는 응답이 약 70%이상을 차지하였던 결과의 연장 선상에서, 학생들은 외국 생활을 준비하며 특히 혼자서 낯선 언어 및 문화권의 교통, 의료, 통신 등 세부적인 실생활 정보를 습득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국가별로 외국인 학생이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예측이 가능하며, 사례대학 구성원들의 국제적 경험과 자료들이 국내 다른 대학에 비하여 풍부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사례 대학 내에 축적된 지식과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홍보를 통하여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항목일 것으로 보인다.

<표 VI-12> 배경변인별 출국 전 외국 생활 준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단위: 명(%)

응답		① 숙소 마련	② 비자 발급	③ 실생활 정보 습득	④ 적응 불안감	⑤ 기타	합계	χ^2
배경변인								
합계		40 (19.7)	31 (15.3)	79 (38.9)	39 (19.2)	14 (6.9)	203 (100.0)	
캠퍼스	1캠퍼스	24 (11.8)	15 (7.4)	48 (23.6)	16 (7.9)	8 (3.9)	111 (54.7)	5.099
	2캠퍼스	16 (7.9)	16 (7.9)	31 (15.3)	23 (11.3)	6 (3.0)	92 (45.3)	
제1 전공	어문	34 (16.7)	20 (9.9)	55 (27.1)	33 (16.3)	10 (4.9)	152 (74.9)	7.163
	비어문	6 (3.0)	11 (5.4)	24 (11.8)	6 (3.0)	4 (2.0)	51 (25.1)	



해외 수학 국가	영미권	4 (2.0)	5 (2.5)	17 (8.4)	6 (3.0)	2 (1.0)	34 (16.7)	2.717
	비영미권	36 (17.7)	26 (12.8)	62 (30.5)	33 (16.3)	12 (5.9)	169 (83.3)	
세부 유형	교환학생	16 (7.9)	9 (4.4)	43 (21.2)	17 (8.4)	9 (4.4)	94 (46.3)	8.393
	7+1	24 (11.8)	22 (10.8)	36 (17.7)	22 (10.8)	5 (2.5)	109 (53.7)	
	파견학생							

*p<.05, ** p<.01, *** p<.001

※ 주 : ① 숙소 지원/마련이 어려움

② 비자 발급이 까다롭거나 비용이 많이 듦

③ 실생활 관련 세부 정보(교통, 의료, 통신 등) 사전 습득에 한계가 있음

④ 낯선 환경 및 생활 방식 적응에 대한 불안감

⑤ 기타(개방형 응답)

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기간 중의 경험 실태 및 문제점

1) 현지 학생과의 교류 정도

사려대학 학생들이 해외에서 수학하는 기간 현지 학생과의 교류 정도에 배경 변인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VI-13>과 같다. 검정 결과, 해외수학국가($t=2.508$, $p<0.05$)와 참여 프로그램 세부 유형($t=2.245$, $p<0.05$)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의 해외 현지 학생과 교류한 정도의 평균값은 2.78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 해외 수학 국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영미권 국가 수학자의 경우 평균 3.12, 비영미권 국가 수학자의 경우 평균 2.71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영미권국가의 경우 기타 언어권에 비하여 파견되는 학생들의 언어 구사수준이 높고 현지학생들과의 교류에 있어서 문화적 격차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영미권 국가에는 국제 학생 교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온 대학들이 많이 포진해있어 학생간 교류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비영미권 수학 응답자 중 ‘전혀 교류하지 않음(0점)’으로 응답한 인원이 총 8명 이었는데, 이들 모두 유럽국가에서 수학하였으며 그 중 프랑스와 스



페인에서 수학한 인원이 각각 3명, 2명이었다. 현지 학생들과 교류가 전혀 없는 응답자들 중 1명은 현지 학생들과 어울릴 자신이 없다면 다른 학생들에게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현지에서의 사회 교류 정도와 이와 관련한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세부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자의 평균은 2.93, ‘7+1 파견학생’ 프로그램 참여자는 평균 2.65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대학 간의 협정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현지 대학 학생들이 자매대학 학생인 사례대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친밀감을 가지거나, 현지 대학에서 보다 많은 교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VI-13> 배경변인별 현지 수학 당시 현지학생들과 교류한 정도

구분		N	M	SD	t
계		203	2.78	0.876	
캠퍼스	제1캠퍼스	111	2.81	0.858	0.579
	제2캠퍼스	92	2.74	0.900	
제1전공	어문	152	2.78	0.893	-0.056
	비어문	51	2.78	0.832	
해외 수학 국가	영미권	34	3.12	0.686	2.508*
	비영미권	169	2.71	0.896	
프로그램 세부유형	교환학생	94	2.93	0.845	2.245*
	7+1 파견학생	109	2.65	0.886	

*p<.05, ** p<.01, *** p<.001

한편, 개방형 응답으로 제시된 사례들 중 수학 대학에서 현지 학생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서 교류가 쉽지 않았다는 경우가 있는 반면, 수학 대학에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었고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현지인, 현지학생, 일반 외국인 유학생들과 편하게 교류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경우도 있어 해외 대학의 사정에 따라 참여 학생의 사회적 교류 기회 정도에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면담자 중 일부는 해외에서도 함께 파견된 사례 대학의 한국 학생들끼리만 수업을 수강하여 현지 대학생이나 일반 외국인 유학생을 만날



기회가 적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면담 사례는 아래와 같다.

OO과에서 주로 가는 7+1파견학생 프로그램은 현지에서 한국인 학생 들끼리만 수업을 들어요. 기본적으로 현지 학생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보였어요. 다른 교양 수업을 수강하면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얘기하긴 했는데 한국인들끼리만 모여 있다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 우리학교 다른 캠퍼스나 다른 학과 학생들과 친구가 됐어요. (7+1 파견학생 D)

파견학생 프로그램으로 나가면 다른 나라 학생들과 다 같이 수업들을 줄 알았는데 레벨을 맞추다 보니 우리 학교 학생들끼리만 수업을 듣게 됐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도 현지어를 잘 하긴 했지만 현지인이 아닌 다른 국적의 외국인 조교였고요. ... 예전에 갔던 선배는 현지 학생들과 같이 수업 들었다는데 저희가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7+1 파견학생 C)

해외 대학에서 사례대학의 한국학생들끼리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는 학과에서 교류대학과의 협정을 통하여 꾸준히 사례대학 학생들만을 위한 별도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온 경우와 파견된 학생들이 현지어 수준에 맞는 수업 수강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별도의 수업을 진행하게 된 경우로 파악되었다. 특히 후자인 C학생의 경우 특수언어권 국가에서 수학하였고, 본인과 함께 파견된 학생들의 현지어 수준이 낮아서 외국인 국적의 조교에게 수업을 수강하며 현지인 교수나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를 갖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사례대학의 해외 수학 경험 중에서도 특이한 상황이라는 하였으나 단 하나의 사례라도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며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유사한 한계점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2) 해외 수학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서비스의 도움 정도

사례대학 학생들이 해외에서 수학하는 기간 현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서비스의 도움 정도에 배경 변인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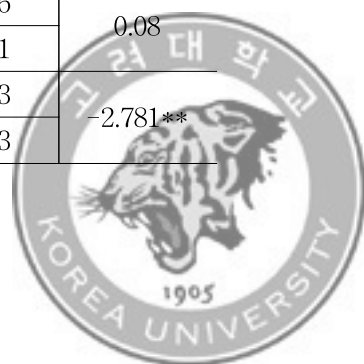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VI-14>와 같다. 검정 결과, 제1전공($t=-2.781$, $p<0.01$), 해외수학국가(3.528 , $p<0.001$), 프로그램 세부 유형($t=2.552$, $p<0.05$)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전공 계열에 따른 차이의 경우 어문계열 학생은 평균 2.14, 비어문계열 학생은 평균 2.59로 해외 현지 대학의 유학생 지원 서비스가 비어문계열 학생의 경우에 더욱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문계열 전공자와 비어문계열 전공자는 해외 현지어 구사 수준 및 현지 문화 이해도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해외 생활을 더욱 낯설게 느낄 수 있는 비어문계열 학생에게 해외 현지 대학의 관련 서비스가 더욱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학국가에 따른 차이로는 영미권 국가 수학자는 평균 2.79, 비영미권 수학자는 평균 2.15로 영미권 수학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해외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서비스가 더욱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수학국가에 따라 현지학생 교류 기회에 차이가 있었던 점과 마찬가지로 영미권 국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제 학생 교류가 활발하므로 평균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서비스 수준이 비영미권 국가에 비하여 우수하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추가로, 개방형 응답을 통하여 현지 대학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도움을 받은 학생이 있는 한편, 현지 대학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지만 정보 부족이나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참여를 하지 못하거나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실제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외 대학에서 제공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거의 없어서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VI-14> 배경변인별 해외 수학 기간 중 생활 적응에 있어 현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서비스가 도움이 된 정도

구분		N	M	SD	t
계		203	2.26	1.002	
캠퍼스	제1캠퍼스	111	2.26	1.006	0.08
	제2캠퍼스	92	2.25	1.001	
제1전공	어문	152	2.14	0.973	-2.781**
	비어문	51	2.59	1.023	



해외 수학 국가	영미권	34	2.79	1.008	3.528***
	비영미권	169	2.15	0.968	
프로그래밍 세부유형	교환학생	94	2.45	0.969	2.552*
	7+1 파견학생	109	2.09	1.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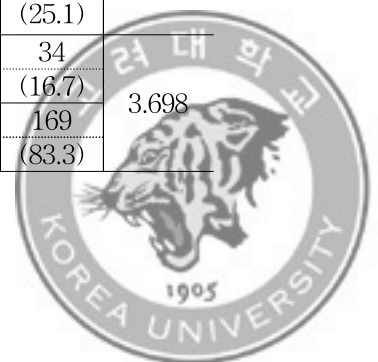
*p<.05, ** p<.01, *** p<.001

3) 해외 생활 및 문화 적응 관련 어려움

사례대학 학생들이 해외 현지 생활과 문화 적응에 있어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표 VI-15>와 같다. 총 응답인원 203명 중 63명(31%)이 현지인과의 교류 기회 부족, 42명(20.7%)이 외국어 실력 부족, 41명(20.2%)이 물리적 환경 격차, 30명(14.8%)이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인 성격, 27명(13.3%)이 기타로 응답하여 현지인 교류 기회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경 변인별 어려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VI-15> 배경변인별 현지 생활·문화 적응에 있어서 느낀 어려움

		단위: 명(%)						χ^2
배경변인	응답	① 환경 격차	② 현지인 교류 부족	③ 외국어 실력 부족	④ 소극적 성격	⑤ 기타	합계	
합계		41 (20.2)	63 (31)	42 (20.7)	30 (14.8)	27 (13.3)	203 (100.0)	
캠퍼스	1캠퍼스	23 (11.3)	32 (15.8)	25 (12.3)	14 (6.9)	17 (8.4)	111 (54.7)	2.34
	2캠퍼스	18 (8.9)	31 (15.3)	17 (8.4)	16 (7.9)	10 (4.9)	92 (45.3)	
제1 전공	어문	27 (13.3)	49 (24.1)	29 (14.3)	24 (11.8)	23 (11.3)	152 (74.9)	4.759
	비어문	14 (6.9)	14 (6.9)	13 (6.4)	6 (3.0)	4 (2.0)	51 (25.1)	
해외 수학 국가	영미권	8 (3.9)	8 (3.9)	7 (3.4)	8 (3.9)	3 (1.5)	34 (16.7)	3.698
	비영미권	33 (16.3)	55 (27.1)	35 (17.2)	22 (10.8)	24 (11.8)	169 (83.3)	



세부 유형	교환학생	21 (10.3)	24 (11.8)	16 (7.9)	14 (6.9)	19 (9.4)	94 (46.3)	9.535*
	7+1	20	39	26	16	8	109	
	파견학생	(9.9)	(19.2)	(12.8)	(7.9)	(3.9)	(53.7)	

*p<.05, ** p<.01, *** p<.001

※ 주 : ① 숙소, 기후, 음식 등 물리적 환경 격차

② 현지민과의 교류 기회 부족

③ 외국어 실력 부족

④ 소극적/내성적 성격

⑤ 기타(개방형 응답)

한편 면담 대상자들은 현지 생활 및 문화 적응과 관련하여 숙소 문제를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꼽았는데, 특히 아래의 면담자 A와 G를 통하여 대학간 교류 협정을 통하여 해외 수학을 진행하는 유형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에도 기숙사와 관련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숙사 문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교환학생 지원하면서 기숙사 배정이 되는 학교를 찾아서 지원한 건데 도착하니까 기숙사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학교 학생은 저보다 더 늦게 연락받았는데도 기숙사에 배정이 되어있고,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학교에서 주선해줬지만 집 계약은 개인적으로 해야 했어요. 돌아올 때 방 빼고 제가 귀국하고 한 달 후에 보증금을 주기로 했는데 공과금 핑계로 보증금을 못받았던 친구들도 있었다고 해서 무척 불안했어요. (교환학생 A)

첫 학기는 기숙사 배정이 됐는데 그 학교는 기숙사 계약이 학기 단위라서 두 번째 학기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환학생이라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안 된다고. 같이 간 친구들 모두 갑자기 집구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귀국보고서에서 집구하기 어렵다고 보긴 했었지만 교환학생인데 그런 상황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학과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고... (교환학생 G)

위의 사례와 관련한 개방형 응답들을 통하여 ‘파견학생’이나 ‘자비유학생’ 프로그램으로 해외에서 수학하는 학생의 경우 통상 기숙사 배정이 쉽



지 않아 학생 스스로 6개월~1년간의 수학기간에 맞추어 숙소를 마련해야 하는 점, 그와 관련한 부동산 계약 등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상대적으로 기숙사 배정 확률이 높은 ‘교환학생’은 대학간의 협정이나 사전 제공된 기숙사 지원 정보를 보고 기숙사에 대한 걱정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그 외의 기타 개방형 응답을 통하여 언급된 어려움들로는 현지의 인종차별과 성차별,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생활비 부족, 자연재해로 인한 불안감, 향수병, 노는 문화 등이 있었다. 특히 특정 국가에서의 ‘7+1 파견학생’들이 학생비자를 발급받지 못하여 체류자격에 문제가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도 발생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소수의 경우라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파견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 또는 학과 차원의 비자 발급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라. 교환학생 프로그램 종료 후 학점인정 관련 어려움

1) 학점인정 관련 학과 심사

사레대학 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 종료 후 학점 인정 시 학과 심사 단계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표 VI-16>과 같다. 총 응답인원 203명 중 72명(35.5%)이 구체적이지 않은 학과 내규로 별도 문의 필요, 43명(21.2%)이 인정 영역별로 상이한 학과 내규, 39명(19.2%)이 기타, 30명(14.8%)이 수시로 바뀌는 학과 내규, 19명(9.4%)이 학점인정여부 반복으로 응답하여,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과 내규만으로 본인이 수강한 과목의 학점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배경변인별 어려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참여프로그램 세부 유형($\chi^2=13.905$, $p<0.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총 94명(46.3%) 중 8명(3.9%)만이 수시로 바뀌는 학과 내규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한 반면, ‘7+1파견학생’프로그램 참여자는 총 109명(53.7%) 중 22명(10.8%)이 해당 항목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교환학생’은 28명(13.8%)이 인정 영역별



로 상이한 학과 내규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하였고 ‘7+1 파견학생’은 15명(7.4%)이 해당 항목으로 응답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7+1파견학생’ 프로그램은 주로 학과에서 선발 및 운영을 주관하는 경우가 많고, 학생들도 본인의 전공/이중전공 관련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관련 전공 학과의 내규가 가장 중요시될 것으로 이해된다.

그 외의 개방형 응답과 면담을 통하여 파악된 어려움들로는 학과의 자체 시험 시행에 대한 문제, 상이한 학사제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의 경직성 등이 언급된 한편, 일부 응답자는 명확한 학과 내규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으로 답변하여 학과에 따른 내규의 구체성 정도나 학점 인정 심사 현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I-16> 배경변인별 국외 학점 인정 학과 심사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

단위: 명(%)

배경변인 \ 응답		① 인정 여부 변복	② 찾은 내규 변경	③ 포괄적 내규	④ 영역별 내규 상이	⑤ 기타	합계	χ^2
합계		19 (9.4)	30 (14.8)	72 (35.5)	43 (21.2)	39 (19.2)	203 (100)	
캠퍼스	1캠퍼스	11 (5.4)	15 (7.4)	38 (18.7)	28 (13.8)	19 (9.4)	111 (54.7)	2.899
	2캠퍼스	8 (3.9)	15 (7.4)	34 (16.7)	15 (7.4)	20 (9.9)	92 (45.3)	
제1 전공	어문	16 (7.9)	25 (12.3)	49 (24.1)	31 (15.3)	31 (15.3)	152 (74.9)	4.419
	비어문	3 (1.5)	5 (2.5)	23 (11.3)	12 (5.9)	8 (3.9)	51 (25.1)	
해외 수학 국가	영미권	2 (1.0)	4 (2.0)	14 (6.9)	8 (3.9)	6 (3)	34 (16.7)	1.312
	비영미권	17 (8.4)	26 (12.8)	58 (28.6)	35 (17.2)	33 (16.3)	169 (83.3)	
세부 유형	교환학생	7 (3.4)	8 (3.9)	37 (18.2)	28 (13.8)	14 (6.9)	94 (46.3)	13.905**
	7+1	12 (5.9)	22 (10.8)	35 (17.2)	15 (7.4)	25 (12.3)	109 (53.7)	
	파견학생							

*p<.05, ** p<.01, *** p<.001

※ 주 : ① 학점 인정 여부가 번복됨 (사전에 인정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았으나 심사 과정에서 불인정)



-
- ② 학과 내규가 수시로 바뀌어서 혼란스러움
 - ③ 학과 내규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수강 과목별 인정 여부를 별도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
 - ④ 인정 영역별(1전공/이중전공/교양)로 학과 내규가 달라서 혼란스러움
 - ⑤ 기타(개방형 응답)

사례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수학 이전이나 출국 이후 외국대학의 수강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각 학과의 국외학점인정에 관한 내규를 통하여 확인한다. 따라서 해당 학과의 국외학점인정 내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거나, 학생이 수강하고자 하는 특정 과목에 대한 인정여부가 내규에 정해져있지 않다면 학과장이나 학과 조교에게 학점인정 여부를 일일이 개별 문의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학점인정 심사 내규를 정하는 학과의 입장에서든 해외 대학들의 학사제도나 학점 부여 체계가 국내의 학사시스템과 다르며 한 학과에서도 여러 국가로 학생들이 파견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학과에서 세계 각지 대학에서 취득해 온 학점에 대한 명확한 심사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다. 특히 학과 내규 개정이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해석은 거의 학과장의 판단에 따르게 되는데, 이는 일관적이지 않은 학점 인정 심사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사례 대학의 학과장직은 통상 1년을 임기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기도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 학기만에 학과장이 바뀌는 경우도 발생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예전 학과장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였던 과목을 새로운 학과장은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며, 학생들은 이러한 포괄적인 학과 내규와 학과장의 재량권 범위를 매우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지적하였다. 학과에 따라서는 국외학점인정내규를 비교적 상세하게 정하거나 소속 학생들이 주로 수학하는 해외 대학의 학점인정 가능 교과목 리스트를 내규에 포함하여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나 설문 응답을 미루어 볼 때 전반적으로 학과 내규의 구체화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래는 구체적이지 않은 학과 내규와 학과장 재량권에 따른 일관성 결여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면담 사례이다.

복불복이에요. 제가 해외가기 전년도에 과 선배가 다녀왔는데 그 선배가 들은 과목을 듣고 싶었어요. 선배가 다닐 때 학과장님은 인정해줬



는데 제가 다닐 때 학과장님은 다 안된다고 하셔서 매일만 10번 가까이 주고받고 전화 통화 해서 수강신청 했어요. 그런데 또 지금 학과장님은 서류 가져가면 다 인정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교환학생 L)

교환학생 다녀오면 4학년 2학기라 예전 학과장님한테 몇차례나 인정 가능한지 여쭙보고 확실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다녀오고 나니 학과장님이 바뀌고 조교들이 인정이 안된다고 했어요. 원래 학과에서는 학과장님한테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 무시하고 직접 연락했었거든요. 지난 학과장님은 친절하게 답변해주셨는데 조교들은 상담해보면 이유도 잘 모르고 안된다고만... 열흘동안 계속 찾아갔을 때 조교들이 힘들거라고 하길래 그래도 직접 한번 뵙고 싶다고 하니 한번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분이라 오히려 역효과가 날거라고 조언했어요. 결국은 예전 학과장님이 새로운 학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서 인정받았는데 그래도 계획했던 것보다 2학점 부족하게 인정돼서 추가 학기를 다니게 됐어요. 교수님하고 학생은 수직 관계잖아요. 불합리하다고 따질 수도 없고 그것마저도 조교 선에서 막히니까 하소연할 데도 없고. (교환학생 G)

교환학생 L의 경우는 학과장이 국외학점인정 심사를 직접 수행하는 학과의 학생으로, 학과장 변동에 따라 예전에 동일한 해외대학에 수학한 다른 학생과 L학생의 학점인정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어 불편함을 겪은 사례이다. 한편 교환학생 G의 경우는 해당 학생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출국하기 이전 시점과 귀국 이후 시점의 학과장이 달라짐에 따라 본인의 학점인정여부가 번복된 사례였다. 또한 G학생은 학점인정심사 관련 문의 처리를 학과 조교들을 통하여야 하는 학과 소속으로, 관련 과정에서 학과장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의사소통하지 못하는 점에서도 답답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학과의 각종 학사 행정 업무의 기초 단계 또는 상당부분을 학과 조교가 처리하는 것은 특히 대규모 학과의 경우에는 흔한 일이며 단순히 국외학점인정 심사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어서 다른 차원에서의 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규학기 학점인정 조건으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국외학점인정 심사는 특히나 졸업 이수 요건 충족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책임감



있는 담당자의 처리를 희망하는 의견들도 제시되었다. 특히나 학점인정여부에 대한 문의는 학생들이 출국 전, 해외 수학 중, 귀국 이후에 걸쳐 계속 발생하는 부분인데 학과 조교 직은 통상 학기당 또는 학기 중간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책임감있고 정확한 안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관적인 학과 내규 확립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또한 학과의 국외학점인정내규 자체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사례와 학점인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확히 안내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어 학점인정 내규 및 학과 심사 절차에 대한 공지 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해외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기준을 각 학과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학생들은 불만을 표현하였다. 명확하지 않은 학과의 내규로 인하여 외국 대학에서 동일한 과목을 수강하고 돌아와 학점 인정을 받을 때 같은 학과 안에서도 학생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학과에 따라서도 인정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은 외국 대학에서 수강한 과목 중 전공 과목은 본인의 소속 학과에서, 교양과목은 교양대학에서, 이중전공과목은 이중전공학과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각각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도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국외학점인정 심사와 관련한 학과장의 재량권에 따라 학점인정 여부가 반복되는 사례의 연장선상으로 학과의 학점인정 규정 자체가 자주 변경되는 것 또한 학생들에게 불공평한 심사 결과 및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다. 2014년 이전까지의 사례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출국 이전 학과장의 서명을 받는 수학계획서를 통해 사전에 학점인정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고 해외 수학 종료 후 학점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명문화되지 않은 학과 심사 기준과 지나친 학과장 재량으로 인한 학점인정여부 반복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4년을 기점으로 국제교류팀의 주도 하에 모든 학과가 내규를 작성하여 국제교류팀으로 제출하며 학생들에게 공지하도록 해오고 있다. 또한 학과마다 해외 취득 학점 인정 기준이 다르고 특히 성적등급부여 기준에 대한 논란이 많아 2014년 모든 학과 내규 제정 시 해외에서 수학한 과목의 성적을 모두 Pass 또는 Fail로 부여하도록 정하였으나, P/F성적 부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학과도 있어 2015년부터는 학과 교수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A,B,C와 같은 성적 등급 부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모든 학과가 국외학점인정내규를 공식화하여 시행해 온 기간이 아직 길지 않고 성적 부여 방식에 대한 불일치된 의견 등으로 인하여 각 학과의 내규는 여전히 많은 발전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모든 학과의 내규 공식화 및 성적 일괄 P/F 부여 시점과, 2015년 국외학점 P/F 성적부여방식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큰 틀에서 각 학과의 내규가 변경, 시행되고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규정 개정이 지속되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 안정화를 위한 과도기적 시기에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어 온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아래는 이와 관련하여 개방형 응답에서 제시된 불만 사례이다.

학교내 학칙을 일년마다 바꾸는 것이 정말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다닌 학기를 빼고 그 전과 그 후에는 성적 평가 방식이 바뀌어서 아쉬웠습니다. 학점을 좋게 받으려 간 해외 수학은 아니었지만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학점 부분이 충족되지 못해서 다른 학기에 간 사람 보다 더 피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개별 학과의 학점인정심사 기준 및 방식 자체의 경직성과 관련한 어려움은 아래 G학생의 면담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업시간을 분단위로까지 계산해서 학점인정을 하는데 우리와 다른 유럽 수업방식을 학점에 반영하는 방법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원래 16시간이어야 1학점인데 이번에 12시간인가 들으면 1학점으로 인정하는걸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분단위로 다 세요. 12시에서 2시 45분까지 수업인 경우에 15분 차이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외국 수업은 렉처가 있고 튜터링이 있는데 렉처만 인정하는 교수님도 있어서 그런 경우 학점 인정 안되고.. (교환학생 G)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자 G의 경험담과 같이 외국 대학의 수업시간을 분단위로 계산하여 학점을 변환하거나 한국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학습



시간을 학점 변환 시 수업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학점 변환 기준은 학생의 입장에서 국내 대학과 다른 외국의 수업 방식 및 학습 시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경직된 제도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해외 대학에서 수강한 수업 과정이나 개별 교과목의 내용과 상관없이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우 학과에서 시행하는 별도의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는 학과도 있었는데, 해외 수학의 성과를 학과 자체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 제기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학과 내규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하는 반면 지나치게 일관되고 경직된 기준을 적용하는 학과 내규 역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학점인정절차 전반의 어려움

사례대학 학생이 교환학생 프로그램 종료 후 학점 인정 절차 전반과 관련하여 경험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표 VI-17>과 같다. 총 응답인원 203명 중 55명(27.1%)이 최종 학점 인정 승인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불안함, 54명(26.6%)이 바로 복학하지 않는 경우 원거리(해외 등)에서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움, 41명(20.2%)이 교무처 또는 학과에서 규정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 혼란스러움, 29명(14.3%)이 학점인정 신청에서 최종 승인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 24명(11.8%)이 기타로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 어려움에 차이가 있었는지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제1전공($\chi^2=14.416$, $p=0.01$)과 해외수학국가($\chi^2=9.629$, $p=0.05$)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전공이 어문계열인 학생은 총 152명(74.9%) 중 가장 많은 46명(22.7%)이 ‘바로 복학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의 어려움’으로 응답한 반면 비어문계열 학생은 총 51명(25.1%) 중 가장 많은 17명(8.4%)이 ‘국외학점 불인정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함’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였다. 수학국가별 차이를 살펴보면, 비영미권 국가 수학자의 경우 총 169명(83.3%) 중 가장 많은 51명(25.1%)이 ‘바로 복학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의 어려움’으로 응답한 반면 영미권 국가 수학자는 총 34명(16.7%) 중 가장 적은 3명(1.4%)만이 해당 항목에 응답하였다.

원거리 서류제출의 어려움과 관련한 전공별 차이는 어문학 전공자의 경우 교환학생 프로그램 종료 이후 추가 어학연수 등을 위하여 휴학을 하고



해외에 체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개방형 응답을 통하여 교환학생 프로그램 종료 후 바로 귀국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학점인정 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원본을 제출하거나 학과장의 면담을 진행하는 등의 과정을 원거리에서 원활히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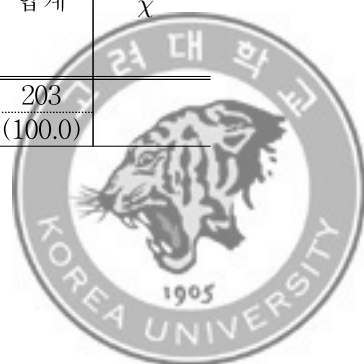
한편, 비어문계열 학생들이 학점 불인정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상대적으로 더욱 많이 응답한 것은 이해 가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어문학계열 학과는 비어문학계열 학과들에 비하여 관련 언어권에서 유학한 교수진의 비중이 높고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학점인정기준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마련되어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소속 전공 계열을 떠나 학점 인정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양한 해외 대학의 수강 과목에 대한 상세한 인정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학과 내규의 구체성 부족 및 인정 가능 교과목 리스트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해서는 대학 차원의 공통의 학점 인정 기준 적용 또는 인정 가능 교과목 데이터베이스화 등과 같은 지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개방형 응답을 통하여 추가로 제시된 어려움으로 해외 대학 서류 발행 또는 학과 심사 지연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또한 국제교류팀 및 대부분의 학과 홈페이지에서 매 학기 국외 학점 인정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개방형 응답에서 ‘학점 인정 절차를 처음 해보는 사람을 위한 정확한 가이드 라인이 나와있지 않아서 혼란스러움’과 같은 절차 진행의 어려움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학생의 입장에서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절차 안내나 매뉴얼 제시가 요구된다.

<표 VI-17> 배경변인별 국외 학점 인정 절차 전반과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

단위: 명(%)

배경변인 \ 응답	① 학점 불인정 불안감	② 복잡한 절차	③ 원거리 서류 제출 어려움	④ 상당한 규정 해석	⑤ 기타	합계	χ^2
합계	55 (27.1)	29 (14.3)	54 (26.6)	41 (20.2)	24 (11.8)	203 (100.0)	



캠퍼스	1캠퍼스	33	12	24	26	16	111	7.635
		(16.3)	(5.9)	(11.8)	(12.8)	(7.9)	(54.7)	
	2캠퍼스	22	17	30	15	8	92	
		(10.8)	(8.4)	(14.8)	(7.4)	(3.9)	(45.3)	
제1 전공	어문	38	21	46	35	12	152	14.416**
		(18.7)	(10.3)	(22.7)	(17.2)	(5.9)	(74.9)	
	비어문	17	8	8	6	12	51	
		(8.4)	(3.9)	(3.9)	(3.0)	(5.9)	(25.1)	
해외 수학 국가	영미권	8	7	3	9	7	34	9.629*
		(3.9)	(3.4)	(1.5)	(4.4)	(3.4)	(16.7)	
	비영미권	47	22	51	32	17	169	
		(23.2)	(10.8)	(25.1)	(15.8)	(8.4)	(83.3)	
세부 유형	교환학생	29	12	22	19	12	94	2.000
		(14.3)	(5.9)	(10.8)	(9.4)	(5.9)	(46.3)	
	7+1 파견학생	26	17	32	22	12	109	
		(12.8)	(8.4)	(15.8)	(10.8)	(5.9)	(53.7)	

*p<.05, ** p<.01, *** p<.001

※ 주 : ① 최종 학점 인정 승인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불안함

② 학점인정 신청에서 최종 승인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

③ 바로 복학하지 않는 경우 원거리(해외 등)에서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움

④ 교무처 또는 학과에서 규정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 혼란스러움

⑤ 기타(개방형 응답)

마. 교환학생 프로그램 추천 여부 및 사유

사례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표 VI-18>과 같다. 총 응답인원 203명 중 191명(94.1%)이 추천, 12명(5.9%)이 비추천으로 응답하여 사례대학 학생들 대부분이 다른 학생에게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 변인별 추천 유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을 실시한 결과 소속 캠퍼스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chi^2=4.226$, $p=0.05$)가 있으며, 제1캠퍼스 소속 학생은 총 111명(54.7%) 중 비추천으로 응답한 인원이 10명(4.9%)인 반면 제2캠퍼스 소속 학생은 총 92명(45.3%) 중 2명(1.0%)만이 비추천으로 응답하였다.

추천 사유로는 전공 외국어 능력 및 문화 이해도 향상, 폭넓은 경험을



통한 가치관, 세계관 확장, 독립심 및 자신감 향상, 진로 결정 도움, 한국 사회 경쟁에서의 해방감, 휴식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다른 학생에게 추천을 하면서도 학점 인정 제한과 적응 지원 부족, 비용 부담 등의 아쉬운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을 함께 언급한 의견들이 있었다. 비추천에 대한 사유로는 정보부족 등으로 인한 학생의 과중한 부담감, 인정 학점 제한으로 인한 졸업 지연, 비용 및 시간적 기회비용이 제시되었다.

<표 VI-18> 배경변인별 다른 학생에게 사례 대학 해외 수학 프로그램 추천 여부

단위: 명(%)

배경변인		응답	추천	비추천	합계	χ^2
합계			191 (94.1)	12 (5.9)	203 (100.0)	
캠퍼스	1캠퍼스		101 (49.8)	10 (4.9)	111 (54.7)	4.226*
	2캠퍼스		90 (44.3)	2 (1.0)	92 (45.3)	
제1전공	어문		143 (70.4)	9 (4.4)	152 (74.9)	0.000
	비어문		48 (23.6)	3 (1.5)	51 (25.1)	
해외 수학 국가	영미권		33 (16.3)	1 (0.5)	34 (16.7)	0.648
	비영미권		158 (77.8)	11 (5.4)	169 (83.3)	
세부 유형	교환학생		89 (43.8)	5 (2.5)	94 (46.3)	0.110
	7+1 파견학생		102 (50.2)	7 (3.4)	109 (53.7)	

*p<.05, **p<.01, ***p<.001

3. 교환학생 프로그램 개선방안

가. 교환학생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의 개선사항

사례대학 학생들에게 출국 전 학업 및 생활 적응 준비를 위하여 어떠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표 VI-19>와 같다. 총 응답인원 203명 중 127명(62.6%)이 해외 수학 경험자의 멘토링, 51명(25.1%)이 현지 대학과의 커뮤니케이션 지원, 9명(4.4%)이 귀국보고서 자료 검색 방식 개선, 9명(4.4%)이 해외환경 적응을 위한 강좌 및 스터디, 7명(3.4%)이 기타로 응답하여, 기존 수학 경험자와의 연결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배경변인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VI-19> 배경변인별 출국 전 해외 대학 학업 및 생활적응 준비를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명(%)						χ^2
배경변인	응답	① 수학 경험자 멘토링	② 현지 대학 소통 지원	③ 귀국 보고서 개선	④ 사전 학습	⑤ 기타	합계	
합계		127 (62.6)	51 (25.1)	9 (4.4)	9 (4.4)	7 (3.4)	203 (100.0)	
캠퍼스	1캠퍼스	72 (35.5)	25 (12.3)	8 (3.9)	2 (1.0)	4 (2.0)	111 (54.7)	8.960
	2캠퍼스	55 (27.1)	26 (12.8)	1 (0.5)	7 (3.4)	3 (1.5)	92 (45.3)	
제1 전공	어문	94 (46.3)	39 (19.2)	6 (3.0)	8 (3.9)	5 (2.5)	152 (74.9)	1.425
	비어문	33 (16.3)	12 (5.9)	3 (1.5)	1 (0.5)	2 (1.0)	51 (25.1)	
해외 수학 국가	영미권	27 (13.3)	4 (2.0)	1 (0.5)	1 (0.5)	1 (0.5)	34 (16.7)	5.195
	비영미권	100 (49.3)	47 (23.2)	8 (3.9)	8 (3.9)	6 (3.0)	169 (83.3)	
세부 유형	교환학생	66 (32.5)	16 (7.9)	4 (2.0)	6 (3.0)	2 (1.0)	94 (46.3)	8.611
	7+1 파견학생	61 (30)	35 (17.2)	5 (2.5)	3 (1.5)	5 (2.5)	109 (53.7)	

*p<.05, **p<.01, ***p<.001

※ 주 : ① 기존 해외 수학 경험자 연결

② 현지 대학과의 커뮤니케이션 지원

③ 귀국보고서 자료 검색 방식 개선



-
- ④ 지역/문화 특성 사전 학습을 위한 강좌 추천 또는 스터디 지원
 - ⑤ 기타(개방형 응답)

해외 수학 경험자의 멘토링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여러 문항의 개방형 응답란을 통하여 기존 경험자 연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해외 수학 프로그램 참여자 중 가장 비중이 큰 어문학 1전공자들의 경우 같은 학과의 선후배 및 동기들 간에 알음알음으로 기존 해외 수학 경험자와 연결이 되기는 하지만 특히나 이중전공으로 어문학을 선택하여 해당 언어권으로 해외 수학을 하는 학생들은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개방형 응답 사례는 아래와 같다.

특히 1전공생이 아닌 이중전공생으로 해당 국가에 간 경우 해당 학과의 선후배들과의 연계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이 부분에 있어서 학과에서 기참가자들과 신규참가자들은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음.

그 외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개방형 응답에서 수학 국가의 문화 특성 및 출국전 준비 내용 습득을 위한 교육, 귀국보고서의 규격화, 국가별 현지 대학 입학에 위한 큰 틀의 가이드라인 제시, 기숙사가 아니더라도 학교나 학과 측의 숙소 마련 지원 등이 언급되었다.

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기간 중 적응 지원 관련 개선사항

사례 대학 학생들의 해외 수학 기간 중 낯선 외국 환경 적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VI-20>과 같다. 총 응답 인원 203명 중 86명(42.4%)이 현지 대학의 유학생 적응 지원 프로그램 강화, 48명(23.6%)이 사례대학 차원에서의 지역별 해외 파견 학생 전담 관리 서비스 제공, 47명(23.2%)이 현지 동문 또는 한인 커뮤니티 멘토링 연결, 12명(5.9%)이 출국 전 사례대학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강화로 응답하여 해외 수학 대학의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배경변인별 필요한 지원의 차이 유무를 확인하기 위



하여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생들이 파견되는 해외 대학의 유학생 적응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위하여 사례대학에서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개선 대응은 주요 교류 대학에 개별적으로 보다 세밀한 학생 케어를 요청하는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내 대학에서 개선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니나 차선택으로 교류협정 체결이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선발 대학 안내 시 해당 대학들의 유학생 적응 지원 프로그램이 얼마나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보다 많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수학 대학을 선정할 때 유학생 적응 지원 프로그램 현황 역시 고려 요소로 포함할 것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설문에서 제시된 지원 개선 방안 외에 개방형 응답을 통하여 추가로 제안된 사항들로 사례 대학 국제교류팀의 꾸준한 연락, 학생 스스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필수 정보 안내 등이 있었다. 특히 아래의 개방형 응답자의 사례는 외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국내 소속 대학으로부터의 안전 유무 확인 연락이 학생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 대학의 국제교류팀이 꾸준히 학생들과 이메일/전화로 연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당시 지진으로 많이 불안했었는데 우리 대학의 국제교류팀 담당자가 보낸 안부 확인 메일이 큰 위로가 되었고 심신의 안정을 주었음.

또한 아래의 교환학생 G의 경험담을 통하여 낯선 외국 환경에 초기 정착하는 기간에는 직전 학기에 해당 외국 대학에 수학하였던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수학 경험자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필요성이 높으며 특히 생활 적응과 관련해서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한편 사례 대학 운영차원에서 큰 비용이나 인력을 소모하지 않아도 시행 가능한 개선 방안으로 생각된다.

다른 학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친구들하고 연결해줘요. 기숙사에 침대, 책상밖에 없어서 요리도구를 다 사야되는데 다른 학교 친구들은



다 선배한테 받기로 했는데 우리학교만 교류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교환학생 G)

<표 VI-20> 배경변인별 해외 수학 기간 중 현지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단위: 명(%)

응답 배경변인		①	②	③	④	⑤	합계	χ^2
		(42.4)	(5.9)	(23.6)	(23.2)	(4.9)	(100.0)	
합계		86	12	48	47	10	203	
캠퍼스	1캠퍼스	44	5	26	29	7	111	3.137
		(21.7)	(2.5)	(12.8)	(14.3)	(3.4)	(54.7)	
	2캠퍼스	42	7	22	18	3	92	
		(20.7)	(3.4)	(10.8)	(8.9)	(1.5)	(45.3)	
제1 전공	어문	68	9	33	35	7	152	1.892
		(33.5)	(4.4)	(16.3)	(17.2)	(3.4)	(74.9)	
	비어문	18	3	15	12	3	51	
		(8.9)	(1.5)	(7.4)	(5.9)	(1.5)	(25.1)	
해외 수학 국가	영미권	13	4	10	6	1	34	3.967
		(6.4)	(2.0)	(4.9)	(3.0)	(0.5)	(16.7)	
	비영미권	73	8	38	41	9	169	
		(36)	(3.9)	(18.7)	(20.2)	(4.4)	(83.3)	
세부 유형	교환학생	37	3	22	26	6	94	4.858
		(18.2)	(1.5)	(10.8)	(12.8)	(3.0)	(46.3)	
	7+1	49	9	26	21	4	109	
		(24.1)	(4.4)	(12.8)	(10.3)	(2.0)	(53.7)	

*p<.05, ** p<.01, *** p<.001

※ 주 : ① 현지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적응 지원 프로그램 강화

② 출국 전 우리 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강화

③ 우리 대학/학과에서 지역별 해외 파견 학생 전담 관리 서비스 제공

④ 현지 동문 또는 한인 커뮤니티 멘토링 연결

⑤ 기타(개방형 응답)

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종료 후 학점인정 관련 개선사항

1) 학점인정 규정 관련 개선사항



사례대학 학생이 교환학생 프로그램 종료 후 학점인정 규정 관련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표 VI-21>과 같다. 총 응답인원 203명 중 73명(36.0%)이 전공 인정 학점 범위 확대, 51명(25.1%)이 일관성 있는 규정 해석 및 적용, 37명(18.2%)이 이해하기 쉽게 규정 정비, 25명(12.3%)이 모든 전공에 대한 인정 기준 통일, 17명(8.4%)이 기타로 응답하여, 많은 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다 많은 전공 학점 인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사례 대학은 어문학 관련 학과의 비중이 높고 해외 수학 참여자 중 어문학을 1전공이나 이중/부전공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 관련 전공으로의 학점 인정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설문 및 면담 결과 여러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전공 인정 범위 확대를 희망하며 현재 전공학점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이에 대한 B학생의 면담 사례이다.

우리 학교는 어문 특성상 해외 교류 프로그램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정당하게 한 학기 돈을 내고도 학점 인정이 너무 조금밖에 안 되는 건 빨리 바뀌야 될 것 같아요. 학점인정 되는 학교도 학과에서 정한 몇 군데 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다녀오면 전공 인정이 조금밖에 안돼서 교환학생이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제 주변에서는 휴학하고 다녀온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비유학생 B)

배경변인별 개선사항 필요성에 차이가 있었는지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해외 수학 국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chi^2=12.653$, $p<0.05$)가 있었다. 영미권 국가 수학 응답자의 경우 총 34명(16.7%) 중 가장 많이 응답한 두 항목은 ‘전공 인정 학점 범위 확대’ 10명(4.9%), ‘모든 전공(학과)에 대한 인정 기준 통일’ 10명(4.9%)이었으며 비영미권 국가 수학 응답자는 총 169명(83.3%) 중 가장 많이 응답한 두 항목이 전공 인정 학점 범위 확대’ 63명(31.0%), ‘일관성 있는 규정 해석 및 적용’ 45명(22.2%)였다.



<표 VI-21> 배경변인별 사례대학의 국외학점인정(학칙 및 학과내규) 규정 관련 개선사항

단위: 명(%)

배경변인		응답	① 기준 통일	② 인정 범위 확대	③ 일관성 유지	④ 상세성 이해도	⑤ 기타	합계	χ^2
합계			25 (12.3)	73 (36.0)	51 (25.1)	37 (18.2)	17 (8.4)	203 (100.0)	
캠퍼스	1캠퍼스		15 (7.4)	38 (18.7)	29 (14.3)	20 (9.9)	9 (4.4)	111 (54.7)	0.613
	2캠퍼스		10 (4.9)	35 (17.2)	22 (10.8)	17 (8.4)	8 (3.9)	92 (45.3)	
제1 전공	어문		15 (7.4)	54 (26.6)	40 (19.7)	29 (14.3)	14 (6.9)	152 (74.9)	4.062
	비어문		10 (4.9)	19 (9.4)	11 (5.4)	8 (3.9)	3 (1.5)	51 (25.1)	
해외 수학 국가	영미권		10 (4.9)	10 (4.9)	6 (3.0)	7 (3.4)	1 (0.5)	34 (16.7)	12.653*
	비영미권		15 (7.4)	63 (31)	45 (22.2)	30 (14.8)	16 (7.9)	169 (83.3)	
세부 유형	교환학생		11 (5.4)	40 (19.7)	21 (10.3)	14 (6.9)	8 (3.9)	94 (46.3)	3.780
	7+1		14 (6.9)	33 (16.3)	30 (14.8)	23 (11.3)	9 (4.4)	109 (53.7)	
	파견학생								

*p<.05, ** p<.01, *** p<.001

※ 주 : ① 모든 전공(학과)에 대한 인정 기준 통일

② 전공 인정 학점 범위 확대

③ 일관성있는 규정 해석 및 적용

④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 정비

⑤ 기타(개방형 응답)

2) 학점인정 절차 관련 개선사항

사례대학 학생이 교환학생 프로그램 종료 후 학점인정 절차 관련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표 VI-22>와 같다. 총 응답인원 203명 중 80명(39.4%)이 관련 부서와 학과간의 책임 및 권한 명확화, 44명(21.7%)이 학점인정신청 절차 간소화, 35명(17.2%)이 신속한 심사 및 절차 진행, 31명(15.3%)이 학점인정신청 과목 입력 시스템 개선, 13명(6.4%)이 기타로 응답하여, 많은 학생들이 학점인



정 절차 진행 시 관련 부서와 학과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배경변인별 개선사항 필요성에 차이가 있었는지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소속 캠퍼스($\chi^2=10.602$, $p=0.05$), 해외 수학 국가($\chi^2=12.283$, $p=0.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소속 캠퍼스별 차이는 ‘학점인정 신청과목 입력 시스템 개선’과 ‘신속한 심사 및 절차 진행’에 대한 응답의 수에서 차이가 관찰되었다. 제1캠퍼스 소속 학생은 총 111명(54.7%) 중 21명(10.3%)이 ‘학점인정 신청 과목 입력 시스템 개선’으로, 12명(5.9%)이 ‘신속한 심사 및 절차 진행’으로 응답한 반면 제2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는 총 92명(45.3%) 중 11명(5.4%)이 ‘학점인정 신청 과목 입력 시스템 개선’으로, 23명(11.3%)이 ‘신속한 심사 및 절차 진행’으로 응답하여 이 두 항목에 대한 캠퍼스별 우선 필요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해외 수학국가별 응답 결과에서는 ‘신속한 심사 및 절차 진행’에 대한 응답자의 수에서 차이가 있었다. 영미권 국가 수학자는 총 34명(16.7%) 중 3명(1.5%)만이 신속한 심사 및 절차 진행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응답한 반면, 비영미권국가 수학자는 총 169명(83.3%) 중 32명(15.8%)이 해당 항목으로 응답하였다.

사례 대학의 국외학점인정 절차는 국제교류팀을 통하거나 직접 수령한 해외 성적표 및 학점 인정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영역의 해당 학과 심사를 거친 후 관련 서류를 교무처의 학사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최종 인정을 받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 전반에 국제교류팀, 학과 사무실, 학사관리부서인 학사종합지원센터까지 최소 세 군데의 단위 부서가 관련되어 있으나 학생들은 각 부서의 권한과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하였다.

관련 부서들 중 국제교류팀의 경우 해외 수학 프로그램 전반을 총괄하며 각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선발을 주관하고 있고 해외 취득 학점과 관련한 국제학술교류규정을 관리하고 있어 학생들은 학점 인정을 포함한 해외 수학 관련한 문제 전반에 대하여 제1연락부서로 인식하곤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실제 해외에서 취득한 학점을 사례 대학의 학점으로 어떻게 얼마나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과 권한은 각 학과에서 가지고 있으며 학과의 내규에 따라 심사하게 되어 있어서 국제교류팀은 학과의 학점인정 심사에 개입할 권한을 갖지는 않는다.

한편, 교무처 학사종합지원센터는 각 학과의 심사를 거쳐 넘어온 학생



별 국외학점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과 심사 결과를 검토한 후 최종 학점 인정 승인을 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학과의 내규에 따른 학과 심사 결과가 학과장 변동에 따라 달라지거나 학과 조교의 행정 미숙으로 학점 인정 심사가 잘못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사종합지원센터 관련 업무 담당자 중 한 명과의 비공식 면담에서 일관적이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학과 심사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사종합지원센터에서 학과 심사 결과가 해당 학과의 내규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더 검토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비유학생’프로그램 참여자이자 학과의 조교로서 학점인정 절차 진행 과정에 참여한 B학생 역시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학과 심사 끝난 서류를 학생이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했는데 거기서 학점 인정 내역이 왜 이렇게 됐냐며 학과로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과 조교들이 규정 몇조 몇항에 따라서 이렇게 인정된 거다라고 붙여서 보냈는데 왔다 갔다 하느라 학생만 번거롭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비유학생 B)

이는 결국 많은 학과의 국외학점인정 심사 기준 및 결과가 일관적이거나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 학점인정내역 승인 부서에서 잘못 처리되었을 가능성을 거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상황이므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국외학점인정 규정 마련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표 VI-22> 배경변인별 사례대학의 국외학점인정 절차 진행 관련 개선 사항

배경변인 \ 응답	단위: 명(%)						χ^2
	① 절차 간소화	② 입력 방식 개선	③ 신속도	④ 책임 권한 명확화	⑤ 기타	합계	
합계	44 (21.7)	31 (15.3)	35 (17.2)	80 (39.4)	13 (6.4)	203 (100.0)	



캠퍼스	1캠퍼스	21 (10.3)	20 (9.9)	12 (5.9)	51 (25.1)	7 (3.4)	111 (54.7)	10.602*
	2캠퍼스	23 (11.3)	11 (5.4)	23 (11.3)	29 (14.3)	6 (3.0)	92 (45.3)	
제1 전공	어문	36 (17.7)	24 (11.8)	28 (13.8)	56 (27.6)	8 (3.9)	152 (74.9)	3.963
	비어문	8 (3.9)	7 (3.4)	7 (3.4)	24 (11.8)	5 (2.5)	51 (25.1)	
해외 수학 국가	영미권	13 (6.4)	1 (0.5)	3 (1.5)	16 (7.9)	1 (0.5)	34 (16.7)	12.283*
	비영미권	31 (15.3)	30 (14.8)	32 (15.8)	64 (31.5)	12 (5.9)	169 (83.3)	
세부 유형	교환학생	21 (10.3)	12 (5.9)	16 (7.9)	38 (18.7)	7 (3.4)	94 (46.3)	1.103
	7+1	23	19	19	42	6	109	
	파견학생	(11.3)	(9.4)	(9.4)	(20.7)	(3.0)	(53.7)	

*p<.05, ** p<.01, *** p<.001

※ 주 : ① 학점인정 신청 절차 간소화

② 학점인정 신청 과목 입력 시스템 개선

③ 신속한 심사 및 절차 진행

④ 관련 부서간(학과, 교무처) 책임 및 권한 명확화

⑤ 기타(개방형 응답)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많은 대학이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홍보·장려하고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시기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참여 동기와 수학 국가 및 대학 선택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어떠한 경험을 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셋째,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연구 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어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상대적으로 다양한 언어권과 국가들로 학생들을 파견하고 있는 한 서울시내 사립대학교인 A대학에서 최근 2년간 정규학기 학점인정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학점 인정 절차를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수학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시기별로 경험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 37문항의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설문지 문항 구성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효과 및 제한점에 대한 선행연구 및 사례대학 구성원의 비공식 사전 면담을 참고로 설정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개인배경을 제외하고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영역의 내용은 1) 해외수학 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국가, 대학 선택 이유, 2) 출국 전 준비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해외체류 기간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귀국 후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해외 수학프로그램 만족도이다.

사례대학의 행정부서 협조를 통하여 온라인 설문지를 배부, 응답을 수집한 후에 설문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설문 응답자 중 8명을 선정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참여 프로그램 유형, 제1전공 계열, 소



속 캠퍼스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학생들로 구성하였다. 면담은 설문을 통해 접수된 응답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중심으로 추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주로 각 면담자의 개별 상황 맥락을 살펴 프로그램 참여 유형이나 소속 학과, 수학 국가 및 대학 등의 다양한 변수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면담 질문에는 공통질문, 개별질문, 면담 상황에 따른 추가 질문이 포함되었다. 연구자의 필드노트를 중심으로 연구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석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 대학 학생들은 해외 수학 프로그램 참여 결정 시 새로운 문화 체험, 외국어 능력 향상, 새로운 교육과정 체험, 전공 학습 심화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수학 국가 선택 시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에 대한 응답은 해당 국가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도, 비용, 지인의 추천, 프로그램 선발 인원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해외 수학 대학 선택 시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는 인지도 및 평판도, 개설 수업의 학점 인정 여부, 비용, 교육과정의 질의 순이었다.

둘째, 사례 대학의 해외 수학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실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출국 전 및 해외 도착시 해외 수학과 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정도에 대한 설문 결과 모두 본인 스스로 해결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개방형 응답 및 면담에서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어렵게 느끼고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해외 대학의 수학 허가 절차와 외국 생활 준비를 위한 대학이나 학과 차원의 기본 정보 제공 및 절차 지원 부족이 지적되었다. 특히 학생들은 출국 전 수학 준비 과정에서는 해외 대학 개설 과목 정보 탐색과 해외 대학 개설 과목의 학점인정 여부 확인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으며 외국 생활 준비 과정에서는 실생활 관련 세부 정보 사전 습득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해외 수학 기간 중 사례 대학 학생들의 현지학생들과 교류한 정도는 평균 2.78점(4점 만점)으로 교류빈도가 크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국 생활 적응에 있어서 현지 대학의 외국인유학생 지원서비스가 도움이 된 정도는 평균 2.26점(4점 만점)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학 국가에 따라서 영미권 국가 수학



자의 경우 평균 2.79점, 비영미권 국가 수학자의 경우 평균 2.15점이었고, 수학국가에 따른 현지 대학 유학생 지원 서비스의 도움 정도의 인식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미권 국가들이 국제학생이동 현상을 이끌어온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 가능한 결과이다. 또한 사례 대학 학생들은 해외 현지 생활 및 문화 적응에 있어서 겪은 어려움에 대하여 현지인과의 교류 기회 부족, 외국어 실력 부족, 물리적 환경 격차,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인 성격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종료 후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과 심사 단계에서는 구체적이지 않은 학과 내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되었다. 사례 대학의 해외 취득 학점 인정 기준은 학칙에서 정하는 재학중 총 인정 학점 제한 등을 제외하고는 세부적인 기준을 각 학과의 내규로 정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학과의 내규가 해외 대학의 학사제도 및 학점부여방식의 다양성 및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내규에서 세밀하게 정하지 못한 부분을 학과장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학점 인정 심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학과장직은 통상 1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점 인정 여부는 출국 이전과 귀국 이후 변동되기도 하고,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학과장과 개별 협의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학점인정 절차 전반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학점 불인정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감과 바로 복학하지 않는 경우 원거리에서의 서류 제출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되었다. 학과 심사 과정에서 학과의 내규가 지나치게 자주 바뀌거나 학과장 변동에 따라 내규의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고 학점 인정 가능한 구체 교과목 또는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부재로 인하여 학생들은 해외 수학을 통하여 취득 가능한 학점 내역을 충분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사례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94.1%의 학생(191명)이 추천, 5.9%(12명)의 학생이 비추천으로 응답하였다. 추천 사유로는 전공 외국어 능력 및 문화 이해도 향상, 폭넓은 경험을 통한 가치관 및 세계관 확장, 독립심 및 자신감 향상 등이 제시되었다. 비추천에 대한 사유



로는 정보부족 등으로 인한 학생의 과중한 부담감, 학점 인정 제한으로 인한 졸업 지연, 비용 및 시간 기회비용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아쉬움 및 개선 제안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추천으로 답변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언급이 되었다.

넷째, 사례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해외 수학 경험의 시기별 지원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출국 이전 학업 및 생활적응을 위한 지원으로는 기존 해외 수학 경험자 연결이 가장 중요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대학의 경우 대학이나 학과 차원에서 기존 수학자와 수학 예정자를 연결해주는 공식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 해외에 수학 경험 공유 및 노하우등이 축적, 공유되지 않고 단절되고 있었는데, 특히나 참여 학생의 입장에서 낮은 해외 대학과 환경 적응을 위하여 기존 경험자의 멘토링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또한 해외 현지에서 낮은 외국 환경 적응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으로는 현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적응 지원 프로그램 강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해외 수학 프로그램 종료 후 진행되는 학점 인정 규정과 관련한 개선 방안으로는 전공 인정 학점 범위 확대와 일관성 있는 규정 해석 및 적용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학점 인정 절차 진행과 관련한 개선 방안으로는 관련 부서간 책임 및 권한 명확화, 학점인정 신청 절차 간소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사례대학은 어문학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어문학 전공자들의 해외 수학 참여 비중이 높아 어문계열 학과의 경우 해외에서 취득한 학점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전공 계열에 구분 없이 학생들은 전공 학점 인정 범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사례 대학 학생들이 생각하는 해외 수학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도출한 결론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대학 학생들은 새로운 경험과 외국어능력 향상을 주목적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하며, 수학 대학 선택 시에는 대학의 인지도 및 평판도를 가장 많이 고려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례대학의 주력 학문 분야인 어문학의 경우 단순한 외국어 구사 능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언어 사용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 또한 필수적이므로 새로운 문화 체험 및 외국어 능력 향상 요인은 사례대학 학생들에게는 더욱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결정 동기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박소진, 2010; 이병식 · Palmer · 박애리, 2011; 이희영, 2012; 정혜진 · 김경원, 2013)에서 파악된 새로운 해외 경험 기회, 외국어 습득, 진로, 취업 목적, 자기탐색 등의 주요 동기요인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 결과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대학 현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동기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 효과 증진 방안 또는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례 대학의 해외 수학 프로그램 운영 방식 상 대상자 선발 및 간략한 절차 안내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수학 허가 및 출국 준비, 현지에서의 적응 어려움 등에 대한 추적 관리, 귀국 이후의 경험 공유 등에 대한 공식 관리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많은 학생들은 해외 수학 프로그램이 선발된 이후의 모든 준비와 절차를 대학의 도움 없이 학생 혼자 진행하여야 한다는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이희영, 2012)에서도 언급되었던 사항으로, 사례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 유형별로 대응 지원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례대학은 다양한 언어와 지역에 대한 교육을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해외 각지 대학 및 기관과의 인적 교류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음에도 기존 수학자들과의 연결 프로그램 부재로 대학 구성원들의 국제 교류경험이 단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수학 준비 및 현지 도착 후 적응 과정에서 외국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 습득에 대한 문제점 역



시 기존 수학자 멘토링 프로그램 마련이 가능하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사례대학 학생들은 해외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지인 교류 기회 부족을 어려움 중 하나로 꼽고 있었다. 또한 해외 현지에서의 사회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환경 적응을 돕는 수학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도 지역이나 개별 대학에 따라 격차가 있는 점이 문제로 나타났다. 해외 수학 기간 동안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 정도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신현석 외, 2015)의 결과를 고려할 때 학생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학 차원의 개선방안 모색은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효과적이고 만족도 높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교류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현황 및 서비스의 질 파악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한 안내의 중요성을 사례 대학과 참여 학생 모두가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환학생 프로그램 종료 후 학점인정과 관련해서는 각 학과에서 정하고 있는 국외학점인정에 관한 내규가 학점인정 여부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망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학과의 내규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학과장의 재량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학과장 보직은 기본적으로 1년을 임기로 하여 학과장 변동에 따라 규정이 해석 및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점은 전공을 불문하고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대학 공통 차원의 국외학점인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모든 학점인정 심사를 개별 학과의 내규로 정하게 하여 사례 대학 내의 모든 학과에서 세계 각지 대학으로부터 취득해 온 학점은 또 다시 국내 대학의 각 학과의 지침에 따라 제각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과간 상이한 규정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학점인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명확하지 않고 일관적이지 않은 학과 내규 및 심사결과에서 기인한 학과와 관련 행정 부서간의 권한 범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사례 대학 내에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이해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국외학점인정 기준이 부재하는 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므로 명확한 규정 마련이 무엇보다 우선시됨을 시사한다.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범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공통의 학점이전체제 마련이 필요함이 지적



되었다(전재은·변기용·이수지, 2014; 신태진 2011; 유성상, 2010; 한신일, 현경석, 2005; 김정희·주동범·박현주, 2012). 학점 이전 체계의 구축은 개별 대학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는 사항일 수 있다. 그러나 개별 대학들에서 국외학점인정 내규 및 절차를 보다 정교하고 학생 편의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인다면, 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고등교육 국제화 물결 속에 나날이 그 중요성이 커져왔으며 프로그램 참여학생 수의 양적 확대에 그간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었다. 반면, 실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세부 경험에 대한 설문 조사나 구체적인 만족도 의견 등에 대한 조사는 빈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개별 대학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구체적인 경험 양상과 인식 파악을 통해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 및 참여 경험 효과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의 모색을 지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제언

가. 실제 개선을 위한 제언

참여 학생의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례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교환학생 세부 운영 유형별 학생의 입장에서 프로그램 지원에서 해외 수학 종료 이후의 학점인정 및 학사 관리에 이르기까지에 필요한 절차와 과정, 그리고 학과 또는 행정부서별로 도움이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명시한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학생 매뉴얼 구축이 요구된다. 사례 대학에서 현재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국제교류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시행하여 학생들의 해외 수학 경험을 장려하고 있으며 특히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영미권 국가 파견 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로 필수 절차 및 규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출국 이전부터 해외수학 종료 후 학점인정을 받기까지의 각 시기별로 겪는 크고 작은 실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혼자 해외 수학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기존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프로그램 참여 단계별로 학생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하는 절차 및 규정, 수학 지역에 따라 요구되는 준비사항 및 문화적 특성, 귀국 후 학점 인정과 관련한 어려움 등을 파악한 후 상세한 매뉴얼을 마련한다면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한 학생들의 부담감 및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장기적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장려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매뉴얼에는 또한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단계별로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나 문의사항을 어느 주체 또는 어떠한 정보제공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지와 특히 학점인정과 관련한 교내 행정부서 및 학과간의 담당업무 및 민원처리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명확한 업무 분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존 해외 수학 경험자와 교수진 등을 통하여 사례대학 내에 축적된 국제적 지식과 경험을 학내 구성원과 공유 및 전수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기존 해외수학



경험생과의 공식적인 연결 경로가 없어서 해외 수학 준비 및 현지 생활 적응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대학은 특히 어문계와 지역학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는 대학으로 다른 기관과 비교하여 해외 수학 및 체류 경험을 지닌 인적자원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어권, 지역별 문화적 특성, 학습 방식 등에 대한 상세하고 방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상기에서 언급한 교환학생 참여 학생 매뉴얼에도 포함할 수 있으며, 특히 해외 수학을 준비중인 학생들과 기존 수학 경험생 또는 관련 학과 내·외국인 교수진과의 면담 주선을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시 공식 지원 방안으로 마련한다면 참여 학생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면담 결과를 통하여 해외 수학 준비 기간은 물론 해외 현지에서 도착하여 정착하는 기간에도 기존 수학자와의 연결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경제적 또는 행정적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학생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기존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귀국보고서의 경우 학생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항목별로 쉽게 조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조회 방식을 개선하면 기존 경험담 구축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동기와 국가 및 대학 선택시 고려 가능한 요소들을 안내하고 주요 요소들과 관련한 수학 가능 국가 및 대학들의 현황을 파악한 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성공적인 교환학생 경험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목표에 따른 요인을 고려하고 올바른 국가와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전공별 또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개별 목표에 따라 수학 국가와 대학을 선택할 때 중요시하여야 하는 요인(예: 해당 국가의 문화 및 지리 요인, 수학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학업 및 생활 지원 프로그램, 숙소 지원 현황 등)들을 파악하고 해외 수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본인의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고 보다 원활히 해외 수학을 준비하여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례 대학의 주요 교류대학 또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유난히 낮은 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고충이나 불만 요인을 파악, 분석하여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대학간의 협업이 요구된다.

넷째, 사례대학 소속 재학생들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확대 및 그에 따른 학생 개인 및 대학 차원의 효과를 기대한다면 넓게는 대학 공통 기준 적용 차원에서, 좁게는 학과의 차원에서 국외학점인정과 관련한 규정을 손질하고 세밀화하여야 한다. 대학에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고 있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많은 비용을 소모하며 참여한 학점인정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일반휴학 후 해외 연수를 떠나는 쪽을 택할 수 있으며,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대부분이 다른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추천하면서도 학점 인정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의 상이한 학사제도권에서 취득한 학점을 국내 학점으로 변환하는 기준 및 방식에 대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으나 학과에 따라 전공 학점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여 불만을 갖는 사례도 있었다. 해외에 체류하며 외국 대학의 수업을 수강하고 해당 문화권에 거주하는 경험 자체로도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의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대학에서 공식 학점인정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많은 학생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제도로서는 학점인정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시행되고 축적되어 온 각 학과의 국외학점인정 기준을 통합, 비교, 분석하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학하는 국가나 대학의 학점 인정 기준은 학과 구분 없이 통합된 기준으로 적용을 받되, 소수 언어권 및 특수한 사례의 경우는 학과의 별도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과장이나 조교의 보직변경에 따라 학생들이 국외학점인정여부에서 불이익을 겪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학과 내규 및 기존 인정방식을 전산화하는 등 학점 인정 심사 결과를 최대한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있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적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이는 단순히 학과 심사를 진행하는 학과장이나 조교 개인의 업무처리 방식 개선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뀌어도 심사 결과에 변동이 없도록 학점 인정 심사 과정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서울 시내 한 사립대학교의 최근 2년 교환학



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으로 한정적이며, 해당 사립대학교의 학문적 특성 및 비전을 바탕으로 교환학생 참여 학생 경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교환학생 참여 경험을 보다 다양한 요인별로 세분화한 연구의 축적이 요구된다. 교환학생 참여 학생들은 본인의 소속 전공이나 해외 수학 국가 또는 문화권에 따라 경험하는 문제점의 양상이 크게 다를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다각도로 시행되어왔다. 본 연구는 사례 대학 학생들의 교환학생 참여 경험에 대하여 참여 시기별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탐구하여 학생들의 배경변인별로 부각되는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 해외 대학의 학사제도와 학습 분위기, 문화적 특성 등은 국내 대학생의 교환학생 참여 경험 성과 및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므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시행된다면 국내 대학들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보다 다양한 설립 유형 및 학문적 특성을 지닌 대학과 많은 수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환학생 참여 경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특정 학문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 단일 사립대학교의 최근 2년간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이 연구의 결과를 국내 대학생의 경향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 대학생의 교환학생 참여 경험의 일반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 넓은 연구대상 설정을 통한 조사 및 분석이 요구된다. 또는, 다른 대학과 대비되는 특수한 환경이나 비전을 설정하고 있는 대학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대학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또 다른 사례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주체 중 하나인 교수를 대상으로 대학생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교수진의 인식, 학점 인정 범위 및 인정 기준 설정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언급된 학점인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국외 학점 인정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진행하는 학과 교수진의 입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한다면 보다 균형있고 발전적인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 개선 방안 시행 단계에 있어 학과별 교수진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각 개별 대학 내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의 차원을 넘어서 국외 학점 인정 기준과 관련한 교육부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국내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국외 취득학점 인정 기준을 취합, 비교, 분석하고 모든 대학들이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 마련 가능성을 탐구하는 연구가 선행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개별 대학의 수많은 학과차원에서 중복적으로 소모하고 있는 인적, 행정적 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국내 대학에서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상이한 학사체계를 운영하는 국가간 학점 변환과 관련한 해외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고등교육의 지역통합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상이한 학점체계간의 학점 이전 및 변환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간단한 공식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나 특히나 국내 고등교육행정 학문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분야인 만큼 구체적인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교육부 주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대학들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요즘 대부분 대학의 국제교류프로그램은 Inbound 외국인학생 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학의 생존을 위한 노력이 불가피한 시기인 만큼 대다수의 국내 학생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 및 전인적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Outbound 교환학생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에도 관심이 요구된다.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 포화기를 지난 것으로 보이며 대학 내부는 물론 사회 여러 기관을 통하여 해외 체류 및 해외 수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졌다. 이러한 시점에서 참여 학생 및 교류 대학의 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데에만 집중해온 방식으로는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본질과 의미, 기대 성과를 최대할 수 없다. 본 사례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례 대학의 비전과 미션에 걸맞는 방향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더욱 내실화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국내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후속 연구 수행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미란·홍영란·김은영·이병식·윤나경(2013).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3-1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안나(2005). 세계화에 따른 고등교육정책의 변화와 대학의 갈등.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91-109.
- 김선주·전재은·유은지(2016). 동서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경험에 대한 이해. **아시아교육연구**, 17(2), 337-366.
- 김아람(2015).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대학생의 미국 대학 수업참여 경험의 의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0), 221-252.
- 김정훈·박정민(2012). 한국 고등교육기관 국제화 수준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 대학의 제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24(1), 1-24.
- 김정희·주동범·박현주(2012). 호주 고등교육질관리기구(TEQSA)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22(5), 127-154.
- 김종영(2010). 미국대학의 글로벌 헤게모니의 일상적 체화. **경제와사회**, 85, 237-264.
- 마리아노미셸(2011). 한국에서 학부 교환학생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박소진(2010). 한국 사회 문화 재인식과 세계 속 자기 정체성 찾기: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동기와 경험. **비교한국학**, 18(1), 217-262.
- 박영희(2011).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이 국제화 의식에 미치는 영향. **국제이해교육연구**, 6(1), 35-77.
- 박정수·천세영·류지성·김진영·양정호·한유경·김승보(2009).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9-3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변기용·전재은·홍세영·박예진(2016). CAMPUS Asia 시범사업의 성과 및 집행과정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2(3).
- 서예란(2011). 국제교류 참여 대학생 특성에 대한 국제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손승남(2017). 볼로냐 프로세스와 유럽 고등교육권역(EHEA)의 발전 전망. **문화교류연구**, 6(2), 5-27.
- 신현석·김희연·전재은·강민수(2015). CAMPUS Asia 사업의 참여성과 분석: 교육과정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25(4), 265-291.
- 신태진(2011). 한국대학들의 해외 학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환학생제도의 문제점 및 행정적 발전방안. **비교교육연구**, 21(2).



- 엄상현 · 변기용(2012).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교육문제연구, 123-155.
- 유성상(2010). 유럽연합의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른 한국 고등교육의
 도전과제 탐색. **비교교육연구**, 20(4), 1-28.
- 윤철경 · 우수명(2012). 국제교류 참여자의 국제교류 이해와 글로벌 역량
 증진도 분석. **글로벌청소년학연구**, 2(1), 58-87.
- 이병식 · Palmer, J.D. · 박애리(2011). 한중일 대학생 교류프로그램 시범사
 업 추진 및 협의 전략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이병식 · 박상욱(2012). 국제교류 참여 대학생 특성에 대한 국제비교 - 한
 국·중국 대학생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22(5), 55-77.
- 이병식 · 채재은(2006). UNESCO/OECD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질보장 가
 이드라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교육행정학연구**, 24(1),
 267-288.
- 이선미 · 김찬란(2013). 단기 해외 체험에서 프로그램 구성 요인이 문화간
 감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7(5), 523-556.
- 이수지(2013). 대학생 발달의 관점에서 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지 · 변기용(2015). 대학효과 이론의 관점에서 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 **교육학연구**, 53(2), 357-387.
- 이정미(2003). 고등교육시장 개방 논리의 구조적 특성과 한계. **교육재정경
 제연구**, 13(1), 145-172.
- 이희영(2012).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들의 교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 중국 및 일본 대학과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재은(2013). 대학생의 해외유학 계획: 영향 요인 분석. **한국교육**, 40(4),
 63-89.
- 전재은 · 변기용 · 이수지(2014). 참여 학생의 입장에서 본 CAMPUS Asia
 사업의 효과와 장애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2(2).
- 전재은 · 이희영 · 변수용(2017). 대학생의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효
 과에 대한 중단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3(2).
- 정혜진 · 김정원(2013). 대학생의 해외연수 참가동기와 연수환경에 대한 중
 요도-만족도 연구. **상품학연구**, 31(4), 2013.
- 조인옥(2015). 한국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연계성 문제에 대한 검토
 - 귀국 중국인 한국어 전공 학습자 대상 설문을 중심으로. **교양교
 육연구**, 9(4).
- 주혜영 · 유병부(2011). 중국 유학생의 유학 적응도가 국가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서비스 수출의 관점. **사회과학논집**, 42(2),
 123-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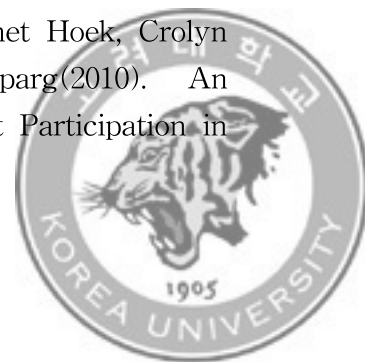
- 최준규(2008). 고등교육 국제화의 개념과 동기에 관한 비교연구.
종교교육학연구, 28. 213-234.
- 한신일·현경석(2005). 국가간 대학의 교류 및 평가협력기구 비교분석
 연구 - UMAP, ENQA, INQAAHE를 중심으로 -. **비교교육연구**.
 15(2). 33-52.
- 함자영(2016). 고등교육단계 국제학생이동의 국가 수준 변화 추이와 세계
 연결망 구조 분석.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교육부(2017). 국내외 유학생 현황 2017. 04. 01 기준(정보공개용).
<http://www.moe.go.kr> 에서 2018. 5. 30 내려 받음.
-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 Albach, P. G.(2004). Globalisation and the university: Myths and
 realities in an unequal world. *Tertiary Education and
 Management*. 10(1). 3-25.
- Alex Vernon & Chris Moos(2017). Student Expectancy and Barriers to
 Study Abroad, *Academy of Educational Leadership Journal*.
 21(1). 1-9.
- Amanda J Daly(2007). Outbound student exchange at Australian and
 New Zealand universities: the effects of pre-departure
 decision-making, in-country experiences and post. PhD
 Dissertation. School of Psychology. Griffith University.
- Ahn Song-ee(2011). Exchange studies as actor-networks: Following
 Korean exchange students in Swedish higher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10(1). 46-57.
- Baik(2015).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awareness and educational
 needs on global leadership competency by global experience
 level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Chieffo, L. & Griffiths, L. (2004). Large-Scale Assessment of Student
 Attitudes after a Short-Term Study Abroad Program. *The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Study Abroad*. 10, 165-177.
- Choi, M (1997). Korean students in Australian universities: intercultural
 issues. *Higher Education Research & Development* 16(3): 263 -
 282.
- Cushner, K. & Mahon, J. (2002). Overseas student teaching: Affecting
 personal, professional, and global competencies in an age of



- globalization.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6(1), 44-58.
- Drori, G. S., & Moon, H.(2006). The Changing Nature of Tertiary Education: Neo-Institutional Perspectives on Cross-National Trends in Disciplinary Enrollment, 1965-1995. in David P. Baker, Alexander W. Wiseman(ed). *The Impact of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on Institutional Theory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Education and Society, Volume 7)*, 157-185.
- Dae-Min Kang(2014). The Effects of SA Exp on EFL Learner's Willingness to Communicate Spaking Abilities and Participation in Class interaction. *System*. 42. 319-332.
- Emily Mohajeri Norris & Joan Gillespie(2008). How Study Abroad Shapes Global Careers - Evidence from the U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3(3). 382-397.
- Guest, Livett, & Stone(2006). Fostering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s for Science Student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0(4), 378 - 395.
- Gonyea, R. M. (2008, November). The impact of study abroad on senior year engagement. In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higher education.
- Gregory K. Armstrong(1984). Life after study abroad A survey of undergraduate academic and career choice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68(1). 1-6.
- Hadis, Benjamin F.(2005). Why are they better students when they come back - Determinants of Academic Focusing Gains in the Study Abroad Experience. *Frontiers: The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Study Abroad*. 11. 57-70.
- Ingraham, Edward C.; Peterson, Debra L.(2004). Asseissing the Impact of Study Abroad on Student Learning at Michigan State University. *Frontiers: The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Study Abroad*. 14. 83-100.
- Kinight, J., & Morshidi, S.(2011). The complexities and challenges of



- regional education hubs: Focus on Malaysia. *Higher Education*, 62(5), 593-606.
- Li, M., & Bray, M.(2007). Cross-border flows of students for higher education: push-pull factors and motivations of mainland Chinese students in Hong Kong and Macau. *Higher Education*, 53(6), 791-818.
- Mazzarol, T. & Soutar, G. N.(2002). “Push-pull” factors influencing international student destination choice.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Management*, 16(2). 82-90.
- McMahon, M. E.(1992). Higher education in a world market. an historical look at the global context of international study. *Higher Education*. 24(4). 465-382.
- Rivza, B. & Teichler, U.(2007). The Changing Role of Student Mobility. *Higher Education Policy*. 20(4). 457-475.
- Shields, R. (2013).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A network analysis.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57(4), 609-636.
- Shields, R., & Edwards, R. M. (2010). Student Mobility and Emerging Hubs in Global Higher Education. In Laura M. Portnoi, Val D. Rust, Sylvia S. Bagley(Ed.), *Higher Education, Policy, and the Global Competition Phenomenon*(pp.235-248). Palgrave Macmillan US.
- Sowa, P. A. (2002). How valuable are student exchange programs?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2002(117), 63-70.
- Sporn, B. (1999). Current issues and future priorities for European higher education systems. In P. G. Altbach, Altbach, & P. M. Peterson (Eds.), *Higher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Global challenge and national response* (pp. 67-77). IIE research report, 29. New York: IIE Books.
- Stephanie Doyle, Philip Gendall, Luanna H. Meyer, Janet Hoek, Crolyn Tait, Lynanne McKenzie & Avatar Loorparg(2010). An Investigation of Factors Associated With Student Participation in



- Study Abroad.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4(5).
- Stroud, A. H. (2010). Who Plans (Not) to Study Abroad? An Examination of U.S. Student Intent.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4(5), 491-507.
- Twombly, Susan B., Salisbury, Mark H., Tumanut, Shannon D. & Klute, Paul (2012). Special Issue: Study Abroad in a New Global Century--Renewing the Promise, Refining the Purpose. *ASHE Higher Education Report*, 38(4). 1-152.
- Ulrich Teichler & Wolfgang Steube (1991). The logics of study abroad program and their impacts. *Higher Education*. 21(3).



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사 목적 및 대상

본 설문은 2016~2017 해외 수학 프로그램(교환/파견/자비)에 참여하고 학점 인정 절차를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참여 경험 시기별 겪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하여 보다 경쟁력있고 내실있는 해외수학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익명성 보장 및 연구목적 활용

귀하의 응답내용은 연구 목적 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 과정에서도 철저히 무기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요청 일자

설문조사 완료는 2018. 5. 15(화)까지 부탁드립니다, 의미 있는 연구를 위해 마지막 문항까지 성심껏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5월 3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고등교육전공
강미리 드림

연구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원으로 국제교류팀의 협조를 통하여 설문을 배부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강미리 mirikang14@gmail.com / 010-9306-1374)



I. 출국 전 준비기간

참여동기, 국가/대학 선정, 출국 준비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해외 수학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하는 데 아래의 요소를 얼마나 많이 고려하였습니까?

	전혀 고려하 지 않음	거의 고려하 지 않음	약간 고려함	매우 많이 고려함
(1) 외국어 능력 향상				
(2) 전공 학습 심화				
(3) 새로운 교육 과정 체험				
(4) 새로운 문화 체험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2. 해외 수학 국가를 선택할 때 어떤 요소를 가장 많이 고려하였습니까?

- ☐ 프로그램 선발 인원
- ☐ 해당 국가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한 관심도
- ☐ 지인의 추천 (친구, 교수님, 가족 등)
- ☐ 비용
-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3. 해외 수학 대학을 선택할 때 어떤 요소를 가장 많이 고려하였습니까?

- ☐ 인지도 및 평판도
- ☐ 교육과정의 질
- ☐ 개설 수업 학점 인정 여부
- ☐ 비용
-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출국 전 준비과정>

4. 출국 전 준비과정 과정에서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본인 스스로	우리 대학 국제교류팀	우리대학 학과(교수 님, 사무실 조교, 친구, 선배 등)	사설 유학원
(1) 수학 허가				
(2) 외국생활 준비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5. 출국 전 해외 수학 준비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 ☐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대학이 어디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 ☐ 해외 대학의 수학허가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
- ☐ 해외 대학의 개설 과목 정보 탐색이 어려움
- ☐ 해외 대학의 개설 과목 학점인정 여부 확인이 어려움
- ☐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6. 출국 이전 외국 생활 준비 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 ☐ 숙소 지원/마련이 어려움
- ☐ 비자 발급이 까다롭거나 비용이 많이 듦
- ☐ 실생활 관련 세부 정보(교통, 의료, 통신 등) 사전 습득에 한계가 있음
- ☐ 낯선 환경 및 생활 방식 적응에 대한 불안감
- ☐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7. 출국 전 원활한 학업 및 생활적응 준비를 위하여 어떠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기존 해외 수학 경험자 연결
- ☐ 현지 대학과의 커뮤니케이션 지원



- ☐ 귀국보고서 자료 검색 방식 개선
- ☐ 지역/문화 특성 사전 학습을 위한 강좌 추천 또는 스터디 지원
- ☐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II. 해외 수학 기간

생활 적응, 사회적 교류, 학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필수응답, 중복 선택 안됨)

8. 현지 도착 후 아래의 항목에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본인 스스로	현지대학 행정부서	현지 대학 학생	우리대학 학과(교수 님, 사무실 조교, 친구, 선배 등)
(1) 낯선 환경 적응				
(2) 수강 과목 결정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9. 현지 수학 당시 사람들과 교류한 정도는 어떠했습니까?

	전혀 교류하지 않음	약간 교류함	빈번히 교류함	매우 빈번히 교류함
(1) 현지학생				
(2) 현지 대학 교수				
(3) 현지인				
(4) 한국학생				
(5) 일반 외국인 유학생				
(6) 기타 (현지 교민 등)				



10. 현지 대학에서 제공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생활 적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도움되지 않음	2 약간 도움이 됨	3 꽤 도움됨	4 매우 도움됨
(1) 외국인 유학생 지원 서비스				
(2) 버디 프로그램				
(3) 오리엔테이션				
(4) 사회, 문화행사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1. 현지 생활 및 문화 적응에 있어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 ☐ 숙소, 기후, 음식 등 물리적 환경 격차
- ☐ 현지민과의 교류 기회 부족
- ☐ 외국어 실력 부족
- ☐ 소극적/내성적 성격
- ☐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12. 해외 수학 프로그램 참여자의 낮선 외국 환경 적응을 돕기 위하여 어떠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현지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적응 지원 프로그램 강화
- ☐ 출국 전 우리 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강화
- ☐ 우리 대학/학과에서 지역별 해외 파견 학생 전담 관리 서비스 제공
- ☐ 현지 동문 또는 한인 커뮤니티 멘토링 연결
- ☐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13. 현지에서 수업을 수강하며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



졌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음	약간 어려움	어려움	매우 어려움
(1) 외국어 실력 부족				
(2) 전문용어 및 지식부족				
(3) 상이한 교수학습 방식				
기타(구체적으로 설명)				

14. 본인이 수학한 해외 대학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매우 미흡함	2 약간 미흡함	4 높이 평가함	5 매우높이 평가함
(1) 교과과정 구성 수준				
(2) 수업 내용의 질				
(3) 강의계획서 충실도				
(4) 수업 내 유학생 배려 수준				
(5) 학사 안내 서비스 수준				
(6) 강좌당 수강인원 적정성				

15. 학습 측면에서 해외 수학 경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우리 학교에서 해외 대학과 교류 협정 체결 시 전공/교과목 선택 제한 최소화
- ☐ 우리 학교/학과 차원에서 전공별로 해외 우수 대학의 추천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안내
- ☐ 우리 학교/학과 차원에서 대학별 학사제도 및 교수법 특성에 대한 자



료 축적 및 제공

- ☐ 현지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학습지원 프로그램 강화
- ☐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III. 귀국 후

학점인정 및 대학 생활 재적응에 대한 질문입니다.

(*필수 응답, 중복 선택 안됨)

16. 귀국 후 현지 대학으로부터 학점 인정에 필요한 서류(성적표 등)를 신속하게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까?

매우지연됨	지연됨	신속함	매우 신속함

17. 귀국 후 우리대학의 학점 인정 심사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까?

매우지연됨	지연됨	신속함	매우 신속함

18. 국외 학점 인정 학과 심사 단계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 학점 인정 여부가 번복됨 (사전에 인정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았으나 심사 과정에서 불인정)
- ☐ 학과 내규가 수시로 바뀌어서 혼란스러움
- ☐ 학과 내규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수강 과목별 인정 여부를 별도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
- ☐ 인정 영역별(1전공/이중전공/교양)로 학과 내규가 달라서 혼란스러움
- ☐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19. 국외 학점 인정 절차 전반과 관련하여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 최종 학점 인정 승인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불안함



- ☐ 학점인정 신청에서 최종 승인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
- ☐ 바로 복학하지 않는 경우 원거리(해외 등)에서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움
- ☐ 교무처 또는 학과에서 규정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 혼란스러움
- ☐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20. 우리 대학의 국외학점인정 규정(학칙 및 학과내규)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모든 전공(학과)에 대한 인정 기준 통일
- ☐ 전공 인정 학점 범위 확대
- ☐ 일관성있는 규정 해석 및 적용
- ☐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 정비
- ☐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21. 우리 대학의 국외학점인정 절차 진행에 있어 가장 필요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학점인정 신청 절차 간소화
- ☐ 학점인정 신청 과목 입력 시스템 개선
- ☐ 신속한 심사 및 절차 진행
- ☐ 관련 부서간(학과, 교무처) 책임 및 권한 명확화
- ☐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 대학 생활 적응 >

22. 귀국 후 다시 국내 대학 생활에 적응하며 느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 ☐ 졸업 시기 지연
- ☐ 학점/성적관리에 대한 부담감
- ☐ 취업에 대한 불안감
- ☐ 수업 진행 방식 적응



☐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23. 귀국 후 대학 생활 적응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지원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외 수학 성과 측정을 통한 만족도 향상

☐ 해외 수학 경험 성찰 및 공유 워크숍 시행

☐ 귀국 학생 대상 대학 생활 안내 제공 (최신 변경 규정, 시스템 등)

☐ 귀국 후 적응을 위한 상담지원 (학습, 취업, 심리 등)

☐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IV.만족도

24. 해외 수학 프로그램 참여를 다른 학생들에게도 추천하시겠습니까?

☐ 예

☐ 아니요

25. 추천 또는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V. 개인배경

26. 해외 수학 당시 본인의 1전공은 무엇이었습니까?

27. 해외 수학 당시 본인의 이중/부전공은 무엇이었습니까?

28. 본인이 참여한 프로그램 종류는 무엇입니까?

☐ 교환학생

☐ 7+1 파견학생

☐ 자비유학생



29. 본인이 수학한 해외 대학 이름은 무엇입니까?

30. 해외 대학 수학 기간 시작 연도를 선택해주시요.

☐ 2016

☐ 2017

31. 해외 대학 수학 기간 시작 월을 선택해주시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32. 해외 대학 수학 기간 종료 연도를 선택해주시요.

☐ 2016 ☐ 2017

33. 해외 대학 수학 기간 종료 월을 선택해주시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34. 해외 수학 첫학기 당시 우리 대학의 등록 학기를 선택해주시요.

(해외 수학 첫학기 기준)

☐ 2학기 ☐ 3학기 ☐ 4학기 ☐ 5학기 ☐ 6학기 ☐ 7학기

35. 성별은 무엇입니까?

☐ 여성 ☐ 남성

36. 나이(만)는 어떻게 되십니까? (2018. 5.1일 기준/숫자로 입력) _____

37.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의 해외 수학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및 제안사항이 있으면 작성해 주십시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